현대불교

제 79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8월 4일 수요일 (음력 6월 24일 · 불기 2554년 · 주간)





한국 간화선 해외 학자들과 조우

東大 불교학술원 12~13일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 국제 학술대회

동 · 서양의 간화선 학자들이 참여해 동아시아 간화선을 비교 · 조망하는 자리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은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사들과 외국의 간화선 연구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Ganhwa Seon, Illuminating the World)'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선사들의 법문을 듣고 한국의 시대별 간화선 수행자에 대해 연구, 간화선을 체계화 · 국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날인 8월 12일에는 혜국 스님(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이 '간화선의 유래와 수행방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 △로버트 샤프(UC버클리대 교수)의 '선 공안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간화선의 로드맵' △나타샤 헬러(UCLA교수)의 '거울을 닦는 도구'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의 '화두의 내재적 구조 일고(一考)'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의 '돈오의 점진적 체험'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의 '간화선의 한국적 이해' △김방룡 교수(충남대)의 '한국 근현대 간화선사들의 보조선(普照禪)에 대한 인식' △제임스 룹슨(하버드대 교수의 '선의 재고(再考)를 통한 재탄생'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서 △혜원 스님의 '선종에서의 수선(修禪)의 전개와 간화선' △할버 아이프링(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의 '명상의 목적과 마음의 태도' △윌리엄 바디포드(UCLA교수)의 '간화선과 중세 일본의 자세검점(子細檢點)수행' △코지마 타이잔(일본 임제종 스님)의 '일본 선계의 현황과 전망'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의 '한국불교 전통선원의 현황과 수행' △즈루(포마나대학 교수)의 '누가 염불을 하는가' △로버트 지멜로(네덜란드 노트르담대 교수)의 '간화선과 중세후기 유럽기독교의 친(親)신비주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 선사들의 회향법문이 진행된다. 12일에는 고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 '참선 수행의 목적'을 주제로, 13일에는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이 '향상(向上)의 정맥(正脈)'을 주제로 한 법문을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관련기사 7면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한국사찰음식연구회 연찬회 이후 진행된 사찰음식 시식회에서 고문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첫 번째)과 회장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두 번째)이 각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찰음식 체계 잡아 세계에 알릴 터

한국사찰음식연구회 사찰음식시연회등 활동 본격화

사찰음식 저변확대에 공헌해 온 한국사찰음식문화보존회가 '한국사찰음식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사찰음식 정체성 회복과 세계화에 나선다.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회(회장 적문)가 7월 26일 이천 감은사(주지 우관)에서 연찬회를 열고 명칭 변경 배경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회장 적문 스님, 고문 선재 스님, 총무 대안 스님, 서기 우관 스님 등 집행부와 정관 스님 등 회원 스님 9명이 참석해 사찰음식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적문 스님은 "개별 활동을 넘어 사찰음식의 체계적인 전승 등에 대한 고민이 이번 명칭을 변경케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대안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사찰음식 관련 교재 편찬과 9월 19~20일 예정인 뉴욕 사찰음식의날 행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연구회를 통해 사찰음식계의 대외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연구회 스님들은 뉴욕 한국사찰음식의날을 앞두고 사찰음식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연찬회 후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회' 현판식과 사찰음식 시식회도 개최했다. (031)682-3169 노덕현 기자

조계종 해외유학승에 장학금

장학위원회 출범… 불교학 · 응용불교 · 불교문화 분야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과 체세포 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 최근 불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조계종단 인적쇄신 등 불교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법은 하나, 인재불사였다.

그동안 말로만 강조돼 온 조계종의 인재불사가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산하 장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맞춤형 인재불사, 능동적인 장학지원을 키워드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학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장학위원은 위원장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해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토진 스님(조계사 주지), 법진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대각 스님(적조사 주지), 정덕 스님(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인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등 11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자승 스님은 "각자의 인연 따라 개별적으로 전달받던 장학금을 종단이 나서 장기적 · 체계적으로 보다 많은 학인스님들에게 지원해주자는 뜻에서 장학사업을 확대했다. 불교의 미래를 키울 인재를 눈 밝게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위원회는 6월 종무회의에서 제정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 령'에 근거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정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 령'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 비구 · 비구니 중 국내 · 외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은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 받는다.

해외 유학승 중 일본 소재 대학은 연 1200만원, 중국 지역은 1000만원, 인도 · 동남아 지역은 800만원, 미국 · 유럽 지역은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종립대학에서 수학중인 스님 중 석사과정은 연 450만원, 박사과정은 연 500만원을 받고, 일반대학 석사과정은 450만원씩 연 900만원, 박사과정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내년 6월 중 설립될 (가칭)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에게도 매월 일정액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교육교역자 스님들에도 프로젝트 수행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위원회는 1차적으로 해외유학승 선발에 집중한다.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 승려 중 해외 대학 석 · 박사 과정에서 유학 중인 스님은 600여 명이다.

장학위원회 스님들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장학위원회를 열고 2010년 장학승 선발 분야 등을 확정했다.

교육원이 27일 발표한 '2010년 장학승 선발 공고'에 따르면 장학승 선발은 △계율 · 불전언어 · 선불교 등 불교학 △윤리학, 법학, 비교종교학, 교육학, 불교호스피스 등 응용불교학 △불교문화재 등 불교문화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선발된다.

장학승 선발은 8월 9일~9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9월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후 10월 중 10명 안팎 규모로 선발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수경 스님 복귀"

화계사 신도 한 목소리

수경 스님이 주지로 있던 서울 화계사 신도들이 스님의 복귀를 호소하는 서명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화계사신도들은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에 2600명 신도 명의의 서명지를 접수시켰다.

화계사 차호법행 신도회장은 "수경 스님이 큰 뜻을 세우고 떠나셨지만 화계사 대중은 스님이 화계사에 더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우리의 뜻을 수경 스님에게 전달할 길이 없어 총무원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계사 신도들은 수경 스님이 6월 14일 주지직 등을 전격 사임하자 홈페이지에 수경 스님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매일 사시예불 후 수경 스님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조동섭 기자



▶9 현장-4대강 대학생 답사단 ▶14 선지식-대선 스님 ▶18~19 책세상-여름에 읽을 불서 22선

◆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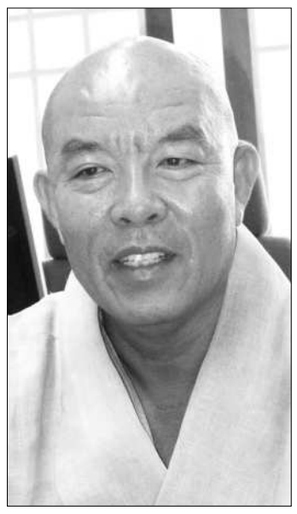
"종단이 필요한 분야 집중 육성"

"신라의 원효와 의상 대사, 중국의 현장 스님과 같은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인재가 종단에 회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 출범으로 조계종 인재불사가 새 전기를 맞은 가운데, 장학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7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광 스님은 "조계종은 정화 이후 도제양성과 포교, 역경의 3대 로드맵으로 제시했다"면서 "도제양성을 위해 종단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지돼 온 종비생 제도가 오늘날 종단 인재불사의 큰 줄기를 잇고 있듯, 장학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도제양성을 실천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장학위원들과 협의해 종단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유행을 쫓아 특정 학문에 편중된 경향이 많습니다. 계율학 등 사회관심은 적으나 종단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보광 스님은 "장학위원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학기금 모금과 선발방법, 종단의 인재활용 계획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장학혜택을 받는 학인 스님 선발은 장학 지원을 받고 학업을 마친 후 종단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회향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위원회의 활동은 해외유학승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학업 중인 스님, 교직자 스님들의 연구비 지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광 스님은 "장학위원회는 불교학과 응용불교학 등 학문에 차별을 두지 않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제33대 집행부가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을 제정하는 등 인재불사에 공을 들이는 만큼 장학위원들은 장학기금이 소중한 삼보정재임을 명심하고 종단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선발 ·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단체, '4대강 중단' 2차 정진

영담 스님에 "대화 응하라" 촉구

8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조계사에서 문수 스님 추모와 생명살림을 염원한 108배 정진과 서울광장서 종교인 4대강 반대 기도회가 봉행된다.

또, 4대강생명살림연대가 제안한 공개대담에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던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교단체들이 주최하는 강도 높은 퇴진 운동이 펼쳐진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는 7월 28일 서울 종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영담 스님과의 공개대담과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연대는 4대강 사업과 종단 쇄신을 별건으로 분리해 각각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영담 스님 공직사퇴를 위한 백일정진'을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문수 스님 소신공양 49재 2차 정진'으로 이름을 바꿔 8월 20일 입재키로 했다. 매주 진행돼 온 생명평화 대화마당도 2차 정진 입재 직후인 25일, 9월 8 · 28일 계속 이어진다. 또, 4대종단연합회와 연대해 진행되는 4대강 반대 운동에는 대규모 단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연대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총무원 총무부를 방문해 영담 스님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영담 스님이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듯이 불교연대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3일 성명서를 내는 등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연대가 영담 스님에게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 도지원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스님의 조건부 공개대담 수용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동섭 기자

"대담 원하면 불교단체 대표 나와라"

조건 없는 공개대담 참석을 촉구하는 불교연대의 주장에 대해 영담 스님은 전화통화에서 "조건이 맞춰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불교연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7월 26일 성명서에서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의 공개대담 요청에 "공개대담을 하려면 불교단체도 대표가 나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성명서에서 "불교연대에는 조계종과 무관한 단체(스님 등)와 이교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엄연한 종단 내부의 문제인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거취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사업 강행 이유 있는가"

화쟁위원회, 낙동강 · 영산강 현장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화쟁안 마련을 위해 낙동강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화쟁위원들은 7월 23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 면담을 비롯해 구미보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종찬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 공동대표 등 구미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4대강 사업 목표가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반면에 국토관리부 심명필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장, 남유신 구미시장 등은 화쟁위원들에게 "4대강 사업은 용수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의 이점을 통해 삭막한 공업도시인 구미를 수변의 환경도시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23일 낙동강 4대강 사업현장을 방문한 조계종 화쟁위원들이 구미보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제공 = 조계종 총무원

화쟁위원들은 정부 측 인사로부터 4대강 공사 현황을 들은 데 이어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궁금점을 질의했다.

도법 스님은 "국민을 분열로 몰아넣으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심명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쟁위원회에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는지 묻는 등 화쟁위원회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화쟁위원회는 8월 2일 나주 승촌보 등 영산강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조동섭 기자**

만해축전 11~14일 인제서 열려

축전 기간 전후 22개 단체가 주관 학술 · 대동한마당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의 제전이자 문화예술인들의 대동한마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민족 · 자유사상과 불교적 평화실천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세계민족 문학 · 시대회다.

11일 만해시인학교 입교식을 시작으로 본행사의 막을 올리는 만해축전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만해축전 첫날인 11일에는 만해시인학교 입교식에 이어 제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과 축제 전야제, 12일에는 만해축전 입재식 및 만해대상시상식이 열린다.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막행사에 해당하는 '만해대상시상식'을 만해마을에서 인제군 '하늘내린센터'로 옮겨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축전 기간 전후로 한국시가학회, 한국시조학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하이데거학회 등 총 22개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심포지엄이 펼쳐져 108편에 이르는 논문들이 발표되며 일부 심포지엄은 축전기간 이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사성 축제 기획홍보위원장은 "시조문학의 경우 최근 4, 5년 동안 민족문학의 중흥을 위해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7개의 시조 관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4회 만해대상 수상자로는 평화부문에 이동건(72) 전 국제로타리클럽 회장, 문학부문에 소설가 존 랠스턴 솔(63) 국제펜클럽회장, 정진규(71) 현대시학 주간, 학술부문에 김학성(65) 성균관대 교수와 존 던컨(65)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부터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활동가까지 범위를 넓힌 실천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인 성운(59) 스님이 뽑혔다. (033)462-2304

노덕현 기자

날짜	행사명	주관	장소
8.6	21세기와 만해	만해학회	만선회 서울사무소
8.7	전국 계간 문예지 축제	열린시학	만해마을
8.7	시조의 문화콘텐츠 활성화방안	시조문학	흥사단 강당
8.11	만해시인학교 입교식	만해마을	만해학교
8.11	단시조 한글서예전	모암서학회	만해문학박물관 전시실
8.11	현대시조의 미학적 전망과 탐색	대구시조시인협회	실라벌성
8.11	제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	만해마을	수련원대강당
8.11	축전전야제	만해마을	수련원대강당
8.12	우리 현대시의 아포리아	현대시학	실라벌성
8.12	현대시조와 메타포	경남시조시인협회	수련원대강당
8.12	제12회 전국고교생백일장	강원일보사	인제실내체육관
8.12	인제군게이트볼대회	인제군게이트볼연합회	인제읍 게이트볼구장
8.12	한국문학의 불교제재 수용과 상상력	현대불교문인협회	수련원대강당
8.12	'알수없어요'의 창작 원리와 의미의 스펙트럼	시안	실라벌성
8.12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길	동북아 미시사회연구소	일석기념관
8.12	님의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강원도민일보사	하늘내린센터 전시실
8.12	전국고교생백일장 시상식	강원일보사	인제실내체육관
8.12	현대 선시의 새로운 방향	시와 세계	만해마을
8.12	만해축전 입재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하늘내린센터 대강당
8.12	7080음악회	인제군	하늘내린센터 대강당
8.13	아시아 · 유럽문학의 경계	창작21 작가회	만해마을
8.14	대동축구대회 개막식	인제군축구연합회	용대리 특공연대
8.15	환경과 문학	한국문인협회	문영유스호스텔
8.15	대동축구대회 시상식	인제군축구연합회	용대리 특공연대
8.17	종교와 시민사회의 소통 가능성과 그 방법론 연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만해NGO교육센터
8.27	문학 · 정치 · 윤리 · 종교	한국작가회의	한양대
9.10	상좌 불교 배척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불교평론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성 명 서

본인은(사)한국불교 조계종 제6대 종정으로써 작금에 진행된 본 종단 탈취사건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본인의 입장을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현재 자칭(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문경 백봉스님은 본종 승려가 아니므로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2. 소위 2010년 1월 25일 작성됐다는 본인의 사직서는 허위조작된 문서이며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무리들은 가급적 빨리 조사하여 엄중 문책할 것이다.

3.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자화스님 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니 전 종도들은 흔들림 없이 총무원장과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본종단의 종풍과 정통성확립에만전을 기하며 수행 정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불기 2554년 7월 25일

문화관광부 등록 141호
(사) 한국불교 조계종 종 정 월 정

공 고

2010년 7월 21일 현대불교신문 대봉스님 공고에 대한 답변

1. 사단법인에 대하여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는 1994년 2월 3일자 문공부 법인설립허가 141호 단체로 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단체 즉 회원종단은 당연히 사단법인체임. 따라서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불교단체 회원종단 한국불교 조계종은 문공부 등록 141호 사단법인체다. 따라서 대봉스님의 이의제기는 합당하지 않음.

2. 날짜가 맞지않는다는 건에 대하여
한국불교조계종 제6대종정 월정스님 예하께서는 2009년 8월 17일 (사)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비로소 한국불교조계종은 사단법인 자격을 취득 하게 됨. 그 후 종단 탈취사건에 대노하신 종정예하RP서는 종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한국불교조계종 대표자를 2010년 4월 10일 전원 만장일치로 본인(자화스님)으로 바꿈. 그 후 본인은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2010년 4월 15일자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획득하였음. 대봉스님은 앞으로 문제제기 하시려면 확실히 알아본 후 하시기 바람.

3. 원로위원 서명날인 건에 대해
지암스님께서는 종단을 안정시키려면 종정큰스님 사임권고를 하여야 한다. 길래 그 말만 믿고 2010년 1월 19일 당시 모인 원로의원스님들께서 종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애종차원에서 서명날인 하였으나 그 후 그것을 이용하여 2010년 1월 25일 종정 월정큰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사직서를 (가짜로 생각함. 누구소행인지 꼭 밝혀야 하는 부분) 작성하여 타종단스님인 대봉스님에게 총무원장자리를 넘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본인도 속았고 종도들도 다 속았음.

4. 끝으로
대봉스님RP서는 당신이 속해있는 단체가 사단법인체가 맞는다면 하루속히 법인설립 허가증 및 근거서류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조치 및 형사처벌 운운하는 말씀은 행동으로 하시던지 아님 본인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이라 삼가주시고 종도스님들께서는 종정 월정큰스님을 믿고 잠시 종단을 떠났더라도 속히 돌아와주셔서 화합하고 정진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종단과 유사한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4년 7월 25일

문화관광부 등록 141호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닭의 울음 들리지 않는가!

2010년인 올해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0년 12월 8일 밤 내설악 백담사에서 유신론은 탈고됐다. 이 책은 불교개혁을 논하는 모두에게 큰 깨침을 주는 목탁소리였다. <조선불교유신론>이 오늘에도 주목되는 이유는 민족과 불교의 생존을 위한 불교의 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예견이라도 했듯이 <조선불교유신론> 집필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아우여 형이여. 들리지 않는가. 이는 파리 소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임을!"이라고 했다. 아직도 한국불교는 닭의 울음이 들리는 새벽이 왔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에 이 책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한용운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민족과 불교의 생존을 위해 불교를 개혁하려 했고 이는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구체화됐다. 즉 불교는 사회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사상이지만, 당시에는 불교가 침체돼 사회개혁을 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 사상적인 면에서 개혁이 돼야 한다고 보았다. 전 17장으로 구성된 <유신론>에서 제1~4장은 만해 스님이 이해하고 있던 불교관에 바탕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밝힌 부분이다. 종교요, 철학인 불교는 미래문명의 원료품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과 불교의 가르침이 평등주의와 구세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제5장부터는 이어서 승려교육, 참선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불교로 하여금 참다운 민족종교 또는 민족 자결의 가치를 지향케 하려는 실천적 입장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시대의 '고(苦)'를 극복하고자 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집필 배경은 조선 불교의 현상을 타개하려는 열렬한 실천적 의도에서였다. 그는 훌륭하게 유신하는 자는 훌륭하게 파괴하는 자라 하여, 낡은 습관을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임을 역설했다. 당시의 한국불교를 다각적으로 비판을 가했다는 점, 보수적인 불교계에 대한 혁명적인 개혁과 신앙의 주체인 대중이 불교를 통해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불교의 모든 분야에 걸친 비종교적 · 비시대적 · 비사회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혁신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발휘시키고자했다. 한국불교가 현대불교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코자 했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시하는 불교적 이상은 무질서한 불교교단의 통제를 주장한 것이다. 이른바 불교현대화를 통한 대중 불교 운동이었다. 그의 실천적 불교정신에 제시된 그의 사상은 자아의 발견, 평등주의, 이타주의, 불교의 구세주의(求世主義) 등으로서 이후 그의 모든 행동적 · 사상적 발전의 토대가 됐으며 지금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그가 남긴 <조선불교유신론>은 여전히 우리의 미망(迷妄)을 깨우는 목탁으로 크게 들려온다.



전보삼
철학박사, 신구대학 교수

만해기념관에 가다

만해의 삶 사상 일목요연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 전시



만해기념관 앞에 놓인 조각가 민복진 作 만해상.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전보삼 관장이 남한산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81년 설립했다.

만해기념관은 1979년 만해사상연구회가 발족된 이후, 1981년 10월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 처음 설립됐다. 1998년 5월 현재의 만해기념관으로 탄생했다. 대지 520평, 연건평 120평 규모로 전시실, 교육관, 자료실 등을 갖췄다. 또 경내에는 만해 스님의 '나룻배의 행인' 시비와 조각가 민복진 작품 '만해 흉상'이 전시돼 있다.

이와 함께 만해기념관에는 만해 스님이 평소 즐겨보던 <음빙실문집> <영화지략> <월남망국사> 수택본들과 <님의 침묵> 초간본 및 100여 종의 판본 등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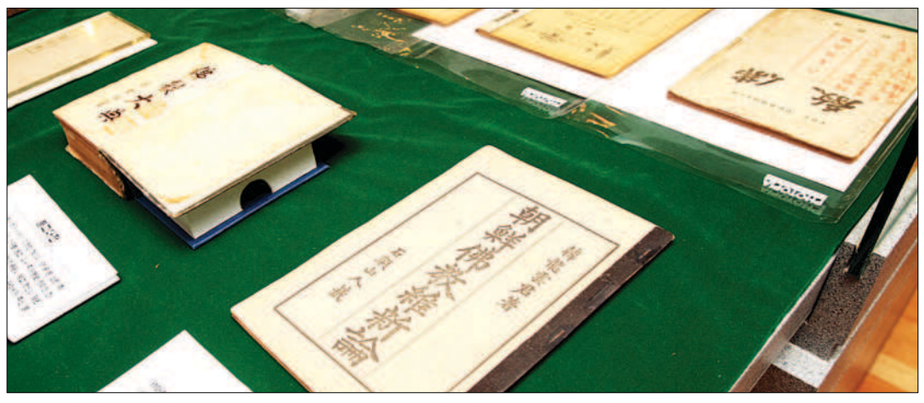
또한 <정선 강의 채근담>(1917) 초간본과, 만해의 친필유묵,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각종 신문자료, 1962년 정부가 추서한 대한민국 건국 공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훈기번호 제25호), 만해 관련 연구, 학술 논문 600여 편이 정리돼 있다. 1913년 5월에 발행된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도 전시돼 있다.

전시장은 만해 스님이 양계초의 <음비실문집>을 비롯한 다양한 책을 통해 어떻게 <조선불교유신론>이 탄생하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는 관람객들이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 승려, 시인 등으로 어떻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는지짐작하게 한다.

전보삼 관장은 "만해기념관은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워주며 만해 스님의 예술혼과 삶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한 지 100주년을 맞았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만해 스님의 불교개혁정신을 대표하는 저술일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제기한 파격적인 불교 개혁 및 유신의 내용들은 면면이 살아 숨 쉬며 근현대 한국불교의 고비마다 나침반과 등대 역할을 해왔다. <조선불교유신론> 집필 10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눈을 통해 현대 불교를 진단해 본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에는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이 전시돼 있다.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 표지는 석전 박한영 스님의 글씨체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조선불교유신론'의 내용과 위상

불교 사상 교육 의식 등 17개 주제 담아
'유신론' 불교개혁 이론 제공한 디딤돌

<조선불교유신론>은 만해 스님이 불교개혁의 당위성, 지향, 대안을 집약해 1910년 여름에 쓴 불서로 근대불교를 상징한다. 1913년 5월 불교서관에서 펴낸 <조선불교유신론>은 한국 근현대불교를 개혁하려던 불교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책이다.

스님은 이 책자를 발간하기 이전 불교를 통한 근대화에 나서겠다는 도전을 시도했다. 1903년, 백담사에서 출가한 만해는 승려의 기본 소양을 익힌 후에는 백담사의 본사인 건봉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그 후 스님은 문명의 중심지인 서양을 탐구하고 싶은 열정으로 세계일주를 단행하고, 서울에 세워진 불교계 최초의 근대학교인 명진학교에서 수학했다. 1908년 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일본과 일본불교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렇듯이 문명과 현실의 본질을 체득하고 1908년 10월 만해 스님은 귀국했다. 그는 불교가 사회와 민족의 중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과감한 유신, 개혁을 단행해야 함을 자각했다. 그래서 스님은 불교의 유신과 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입장, 대안을 옹골차게 피력하는 저술작업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불교유신론>이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17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그는 서론, 불교의 성질, 불교의 주의, 불교유신은 파괴로부터, 승려의 교육, 참선, 염불당의 폐지, 포교, 사원의 위치, 불가에서 숭배하는 소회(塑繪; 탱화), 불가의 각종 의식, 승려의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불교의 장래와 승니의 결혼문제, 사원 주지의 선거법, 승려의 단결, 사원의 통할, 결론 등이었다.

만해 스님은 우선적으로는 불교가 사회와 문화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불교의 이념과 근대 이념과의 부합에서 찾았다. 그러나 스님은 불교가 근대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관행, 의식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구태의연한 교육, 참선, 염불, 사원의 위치, 탱화 등을 개혁 혹은 제거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만해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의 개혁을 주장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인 승려의 결혼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즉 인간의 윤리, 국민의 증대, 포교의 관점에서 승려결혼을 방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만해는 승려의 인권과 불교의 존립의 차원에서 승려결혼을 주장했다. 이런 성격은 승려 노동을 통한 승려 인권회복을 주장한 데에서도 나타났다. 승려들의 단결과 사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승려와 불교의 체질이 근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선불교유신론>의 내용은 당시 불교계에 격심한 찬반 양론을 가져왔다. 거시적으로 보면 근대불교에서 만해 스님의 주장은 상당 부분 수용됐다. 만해는 1944년 입적할 때까지 유신론의 개혁이론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실천했다. 만해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기한 주장, 즉 대중불교론은 학인, 청년학승을 통해 전불교계에 퍼져 나갔다.

<조선불교유신론>은 해방 이후에도 불교와 종단을 개혁하려는 학인, 재가불자들의 필독서가 되어 불교개혁의 이론을 제공한 디딤돌이었다.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만해기념관. 기념관에는 만해 스님과 관련된 유품, 저서, 관련 서적 등이 전시돼 있다.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법사 방필석

신생아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耕當問奴 (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화신청환영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계좌번호: 306-07-19442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필석

일 주 문



제4회 법화사 연꽃축제

서귀포 법화사 주지 도현 스님은 8월 7~8일 법화사 일대에서 제4회 법화사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64)738-5225



구미 다문화음식점 개점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7월 28일 구미역사 3층에 다문화음식점 '多-ZONE'을 개점했다.



역삼수련관 아토피 캠프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 주경 스님은 8월 12~14일 횡성 숲체원에서 '숲에서 뛰어노는 아토피 캠프'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 명예회장 추대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한국불교학회 회장 임기를 마치고 첫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중앙신도회 문화재 환수위 청년단 모집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8월 23일까지 제2기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단을 모집한다. (02)733-7278



대불련 총동문회 봉정암 순례

명호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은 8월 14~15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 8회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열고 앞서 봉정암을 순례한다.



공불련 10주년 기념전시회 공모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8월 20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작품을 공모한다. 전시회는 10월 8~17일 열린다.



조계사 원심회 여름수련회

김장경 조계사 원심회 회장은 8월 7~8일 남해 용문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0-4528

■ 문광부 종무관 임명



이병두 前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이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에 임명됐다.

이 신임 종무관은 1955년 태어나 한국외대 이태리어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 문수선원 개원한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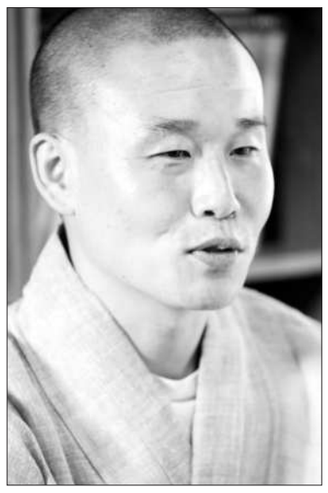
4대강 공사는 욕망에 근거한 일

"4대강 지키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4대강 사업은 권력과 자본, 욕망과 이기심의 집합체입니다. 4대강 반대 운동은 국민과 정부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사진)은 영산강 생명살림운동의 구심점이 될 '문수선원'을 7월 29일 문빈정사와 영산강 승천보 공사현장 2곳에 개원했다.

법선 스님이 발심한 계기는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서 비롯됐다. 스님은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뿐인 운동, 관념적인 불교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실천하는 4대강 사업 저지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출가자들조차 아주 작은 것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소임 맡은 절과 신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종권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과 생명을 운운하지만 모두 말뿐이다." 법선 스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문수스님에게 빚을 진 것처럼 미안하다"며 "같은 출가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이제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이 영산강 공사현장에 선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종교인이 확보해준다는 것"이지만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참회와 기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승천보 공사현장에는 컨테이너를 두려고 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천막을 치고 활동하게 됐다. 법선 스님은 문수 스님 49재를 앞두고 지역 스님들과 영산강에 문수선원을 세워 환경운동을 펼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문수선원은 법선 스님 외에 광주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 노래하는 스님 범능 스님을 주축으로 운영한다. 문수선원에서는 공개 질의서 등을 통해 종단과 호남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야권 정당에 대한 강력한 참회와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선 스님은 "최근 영담 · 성타 스님이 4대강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4대강 문제 등한시 하는 종단 내부의 문제이자 불교계 상층부의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호남지역 영산강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와 더불어 야당의 책임이 크다"며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당론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박준영 도지사를 내버려 두는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수선원은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문빈정사에 세워지는 문수선원은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토론의 장을 펼쳐나간다.

또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공동대표 임낙평)에서 활동 중인 200여 개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개신교 환경단체 등과도 연대활동을 펼친다.

이상언 기자

◆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도제양성 위해 경주에 교육원 설립



도제 양성은 종단의 미래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을 빼놓고는 도제 양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각 종단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관심사가 도제 양성이다.

한국불교에서 묵조선의 전통을 잇고 있는 조동종(원장 대은 · 사진)이 도제 양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7월 27일 주석처인 불암산 도선사에서 기자와 만난 총무원장 대은스님은 도제 양성을 위한 청사진 한 자락을 펼쳐보였다.

"교육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경주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필지 중 1필지 6060㎡(2만평)를 이미 매입했고, 나머지도 매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은 스님은 "요즘은 너무 쉽게 스님이 되어버리니까…"라며 도제 양성의 부실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은 스님은 69년에 출가해 71년 8월에 수계했으니, 행자로 2년을 보냈다. 서울 법륜사 주지를 역임한 은사인 도개 스님을 모시면서 "빡시게 했다"고 회고했다.

행자교육은 최소 6개월을 계획하고 있다. 승려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습의와 초발심자경문과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소의경전을 익히기에는 적은 기간이지만, 지금의 종단 상황에서 6개월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기존 승려는 년 1회 이상 연수교육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교육원은 출가 희망자를 위한 행자교육, 종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는 묵조선 수행센터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동종은 묵조선(默照禪)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열린 운영을 할 것입니다."

대은 스님은 '묵조선'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묵조선을 일본 불교의 수행법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묵조의 참뜻은, 부처의 씨앗이 이미 마음 밭에 심어져 있으니 묵묵적적(默默寂寂) 조선하여 발굴하면, 깨달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동산양개 대선사에 의해 선법이 정착되어 우리나라에는 9산선문 중 수미산문을 개창한 이엄진철 대선사께서 묵조선을 진작하셨습니다."



중국 조동정종에서 법을 이어받음을 기념해 중국 소림사에 세워진 조동종 기념비 앞에서 조동종 스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억불정책과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법맥이 끊겼다. 1989년 현 종정 지명 스님을 중심으로 조동종을 창종하여 법맥 잇기에 나섰다. 마침내 94년 7월 중국의 조동정종(曹洞正宗) 숭산 소림사 30대 방장인 청심소희(靑心素喜)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60여 조동종 스님들이 법을 이어받았다. 지금 소림사 사천왕문 앞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조동종 소속 사찰은 350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여 사찰에 이르렀으나, 분담금 미납 · 연수 불참 등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찰을 과감하게 제적했다.

"군소종단의 현실에서 제적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가 바로 잡혀야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종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조동종은 사찰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종단을 지향합니다."

정성운 기자

태고 발자취 집대성 출간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평전 출판기념 법회

태고종조 태고보우 국사 탄신 제709주년을 맞아 태고보우 국사와 국사에게 임제법맥을 전수한 석옥청공 선사의 평전이 출간됐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은 7월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석옥 · 태고 평전>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석옥 · 태고 두 조사를 청하는 태고종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의 설선의 봉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대은 스님의 경과보고,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무공 스님의 평전 불단 봉정과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게 증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옥 · 태고 두 조사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의 귀감이 되고 근본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15년간 연구 · 조사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종파를 회통한 통합불사를 실현하신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과 행적을 기리고 널리 선양하며, 태고종 도로서의 자긍심을 크게 고양하기 위해 <석옥 · 태고평전>이 발간됐다. 평전은 시대적 화두인 소통과 화합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고 원융정신 구현과 불교사적인 귀한 자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옥 · 태고평전>은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태고사상 제6집으로 편저됐다. 책에는 태고 스님의 발자취와 구법의 길, 태고 스님에게 불조의 심인을 전해준 석옥 선사와의 만남, 원융불교의 실천, 태고와 석옥의 어록, 탑비명, 구법논문 등이 400여 쪽 분량으로 담겨져 있다.

조동섭 기자

행원문화상 수상
각묵 · 성륜 스님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7월 22일 2010년 제1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역경분야에 각묵 스님(사진 · 좌), 예술분야에 성륜 스님(사진 · 우)을 각각 선정했다.

역경부문 수상자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며 초기불전을 한글로 옮기는 번역불사를 20여 년 간 진행했다. 예술부문 수상자 성륜 스님은 불교회화를 현대회화와 접목한 작품으로 불교철학과 선사상을 해외에서 펼쳤다. 시상식은 9월 14일 서울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린다. (02)586-6521

노덕현 기자

2010년 후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염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 요 경 전 반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043)646-3800

종교가 사회문제 해법 제시해야

함세웅 신부 사회 현안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질책 호소

"사회와 결별하고 벽 안에만 있으면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사회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오랜 지도자로 민주화 운동 등 사회변혁을 이끌어 온 함세웅 신부(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7월 27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개최한 불교미래포럼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 사회현안에 대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호소했다.

'종교의 눈으로 바라본 유신에서 촛불까지'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함 신부는 남북 경색국면 해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종교계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신부는 "불자 수에서 드러나듯 한국인들의 심성기저에는 불교적 요소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정권의 지도자가 바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불교"라고 말했다.

이어 함 신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개발 사업은 자연파괴라는 큰 위험 앞에서 모두 염려하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천주교 내에도 철저한 보수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종교의 역할을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자 하나 하나의 기도와 질책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개최한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불교계가 사회부조리에 맞서 연대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함 신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색국면에 대해 "남북분단 상황 속에 있는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반공과 안보라는 논리로, 공권력이 총동원돼 국민들을 세뇌하고 협박하고 있다. 남북은 각각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사대주의를 먼저 극복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이어 "일부 정치 세력이 주요언론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을 확대과장 선전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지만 6·2지방선거의 결과로 '민심은 천심이다'는 격언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새로운 세대에 대해 더 큰 희망을 갖게 됐다. 선거결과 하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무소불위의 독재로 치닫던 정권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에 대해 6·2지방선거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평했다.

함 신부는 "올해는 안중근 순국 100주년, 6·25 60년, 광주항쟁 30주년, 6·15 선언 10주년 등 기념비적인 행사들이 많은 그야말로 기적의 해"라며 인권·민주화 운동가 등 사회운동가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함세웅 신부는 보수적이고 사회활동에 나서지 않던 신부들이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해 투옥당한 일화 등도 털어놓았다.

함 신부는 "1965년 군을 제대하고 8년간 로마에 유학하고 돌아와 중학생들까지 6·25 기념행사에 동원시키는 것을 보고 첫 문제의식을 느꼈으며, 1974년 7월 외국에서 돌아오던 지학순 주교가 학생운동 자금지원 명목으로 김포공항에서 정보부에 끌려가는 것을 보며 사제로서 사회적 행동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함 신부는 "서울 수도권의 젊은 사제 30여 명이 모여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출발점"이라며 "독재자의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 대해 '아니오'를 분명히 말한 사제들에게 모든 이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응답했고 그해 9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구성해 오늘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사람만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꼭 현실이 된다"는 함 신부.

함 신부는 끝으로 이상적 한국 시민사회 근간 정신으로 △항일독립투쟁과 친일잔재청산작업 △민주주의 실현과 군부독재 청산작업 △민족의 일치와 화해 등 세 가지를 꼽으며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대북문제 2題

민간 지원 이어져야

최근 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라 대북 민간 교류 사업이 무더기로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민간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토행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종단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승 스님 초청 다담에는 정토법당 원장 유수 스님, 정토행자 10여 명이 자리했다. 이상언 기자

밀가루 지원 연기

5대 종단 대표들의 모임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추진중인 30여 명 개성 방문과 밀가루 300톤 지원이 8월로 다시 연기됐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관계자는 "남북 대결 구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8월 30여 종교인의 방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종교인들의 방북이 성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종교인들이 물꼬를 터야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교류와 식량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체의 스님 취임법회

(사)대한불교원융종은 7월 28일 서울 구로동 명품웨딩홀에서 제8대 총무원장 체의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원융종 4대강령인 '원융무애, 원만융통, 원통융화, 원융회통' 선창으로 시작된 취임법회에는 일공 종정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임 총무원장 체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과 포교에 중점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공 종정스님은 법어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소임을 다한 성관 스님의 노고를 치하한다.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원융의 의미를 다해가는 종단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서는 종단발전에 노력해 온 종도들에 대한 공로패와 신임 각 원장과 종무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됐다. (02)853-0531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대중결사 8월 아카데미 '노예인가 주인인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8월 9일 오후 6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관에서 '당신은 노예인가? 주인인가?'를 주제로 8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마가 스님이 자비명상을 진행하는 행사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02)732-1209

조동섭 기자

불교환경연대 '뚝딱 숲속' 어린이 생태학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8월 6~8일 경기 남양주시 봉영사에서 '뚝딱!! 숲속'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3~5학년 어린이 대상의 행사에서는 숲속 보물찾기, 예불, 빈그릇 공양 등 다양한 사찰 체험과 생태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 선착순 30명. (02)720-1654

조동섭 기자

아름다운동행 이영임 불자 삼천만원 보시



안성 칠장사에 다니는 이영임 불자(법명 선화궁)가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보시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과 이영임 불자는 7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영임 불자가 기탁한 3000만원은 논산 훈련소 법당, 로터스월드, 연꽃마을에 각각 1000만 원씩 전달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영임 보살의 소중한 원력이 불교계가 진행중인 뜻 깊은 일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목아박물관 경기도내 청소년에 무료 개방

불교박물관인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이 2010년 경기도 내 청소년에게 무료 개방된다. 박물관 측은 '2010년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단체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 목아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아 박찬수씨가 한국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을 위해 설립했다. (031)885-9952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교육편람' 발간

군승교육을 집대성한 자료가 출간된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최근 "예비군승에서 현역 군승에 이르기까지 군승교육을 총망라한 <군승교육편람>을 발간하고 8월 중 고불식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군승교육편람>은 현역 군승 10여 명이 투입돼 2008년 7월부터 2년 여에 걸쳐 12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책에는 군승 제규정과 군불교 현황, 의식 및 설법자료, 상담, 포교방법론, 군종장교의 역할, 이웃종교 관련 자료 등 군승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군승교육편람>은 초대교구에서부터 현재까지 군승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편람이다. 앞으로 군승 교육지침서로 활용돼 군승 자질향상은 물론 군포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Ⅰ Ⅱ Ⅲ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Ⅳ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 '자비의 밭' 일구는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

"모았으면 나누어 도와야지요"

"모으기만 하면 뭐해요. 조금 모이면 조금 모이는데로 열심히 나누어 도와줘야지요."

세상에는 40억 명이 넘는 부처님이 있다. 이중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전(福田)을 일구는 스님이 있다. 광주 비전사(悲田寺) 주지 보혜 스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이루려 한다. 하지만 보혜 스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적은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부프로그램 '자비의 밭'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비의 밭'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10원부터 보시를 하도록 한다. 10원은 복을 담고 있는 씨앗 '복 종자(福 種子)'다. 과거 1000불, 현재 1000불, 미래 1000불에게 10원씩 보시해서 1년에 1~3만원 부터 보시할 수 있도록 한다. 1년에 1000불에게 올릴 것인지, 2000천불에게 올릴 지는 개인 선택이다. 자비의 밭 기부프로그램은 작은 정성과 관심만으로 쉽게 보시금을 모으기 때문에 신도들의 호응도가 높다. 비전사에는 이렇게 1000불, 2000불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 신도들이 많다.

신도들은 후원에 동참하면서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후원금을 만들어,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을 직접보기 때문이다.

'자비의 밭' 으로 마련된 기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 마련, 군법당, 노인복지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장학사업, 광주생명나눔을 통해 소아암백혈병의 환우지원, 노숙자지원센터, 장학금, 급식비 등에 후원한다.

보혜 스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자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은 2000년 광주 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작은 사찰 비전사를 마련하면부터다. 비전사의 비전(悲田)은 복을 받기 위하여 공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세 대상 중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스님은 비전의 뜻과 전문가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비록 작은 출발이었지만 복전에 씨를 뿌리는 이들은 더욱 늘어갔다.

"처음에는 신도분들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장학금으로 출발했어요. 대부분 절에는 시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신도들은 장학금을 생소해 했었죠."

신도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받은 장학금을 부처님이 주신 장학금이라고 생각했다. 신도들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우러났고 스님과 이웃에게 감사했다. 10여 년 동안 80여 입학생에게 장학금 10만원씩이 전달됐다. 수백, 수천 만원하는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던 신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밖에 입춘 공양미를 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10년째 진행중인 쌀 전달은 올해 쌀 3000kg나 돼 곳곳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 네팔 노동자 24가족 40명에게 생계비, 교육비, 장학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보혜 스님은 해외 기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네팔인근의 불교국가인 무스탕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다. 장남과 차남 중 한명은 출가를 해야하는 불교국가에 출가자들을 위한 후원과 학교시설을 지어주기를 발원했다.

보혜 스님은 작은 사찰들에 다양한 후원은 물론 신행활동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큰 목돈을 쥐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은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되듯 복의 씨앗을 복전에 뿌리고 있었다.

보혜 스님은 "받는 것에만 익숙한 한국불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누고 공유해야한다. 모든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 작은 사찰의 작은 실천은 지역사회와의 공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천개의 작은 사찰이 천개의 복전을 만든다면 '개울물이 큰 바다'를 만드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스님이 천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당에서 템플스테이를 가다

익산 숭림사, 이웃종교 청소년들과 이색 템플스테이

이웃종교 청소년들이 한국전통 불교문화체험을 위해 사찰을 찾았다.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7월 24~25일 불교 가톨릭 무종교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20여 청소년들은 입제식에 이어 자기소개와 발우공양, 저녁예불, 참선, 다도, 주지스님 특별법문, 108배 참회정진, 운력, 자기소개, 소감발표 및 소감문 작성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은 템플스테이에 처음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반응이었다.

지광 스님은 행사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바쁜 학업을 뒤로 하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을 환영한다"며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숭림사 인근의 함열성당에 다닌다는 하수민(여, 19)양은 "비록 종교가 불교는 아니더라도 절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참선은 나를 리셋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가톨릭 · 무교 등 이웃종교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참선 체험을 하고 있다.

신재용(남, 17)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며 "참된 나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남, 17) 학생은 "성당에서 절을 간다니 이상한 생각과 평소에도 템플스테이는 관심이 있어서 기대반 두려움 반으로 왔다"며 "익숙하지 않은 식사방법에 놀라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저녁을 먹은 것 같았지만 스님들의 대단한 절약정신과 실용성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도훈(남, 17) 군은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동체의식도 배웠다"며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공동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계기가 되었다. 수능전에 다시 한 번 와 보고 싶다"고 소감했다.

김영경(여, 16)양은 "끈기가 없던 내가 참선도 해보고 마음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고3이 된다면 같이 수련했던 언니처럼 이곳에 혼자 와서 1박 2일동안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소자 독경대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순천 홍선사

홍선사(주지 정안)는 7월 27일 순천교도소에서 350여 재소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 맞은 이번 행사에는 선암사 전각스님, 용화사 주지 선안 스님, 선암사 지법 · 동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경연대회에는 순천교도소 불자 재소자 10여개 팀은 열띤 경연을 펼쳤다. <금강경> <천수경> <신묘장구대라라니> 독경 소리가 교도소에 울려퍼졌다.

전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평상시에도 꾸준히 계속하면 몸과 마음의 평화가 어느덧 자신에게 깃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심회 의료봉사 마하의료회

"할머니,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세요. 약 드릴 테니 꼭 챙겨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연수(73) 어르신 손에 약봉투를 챙겨드리며 이야기한다. 최연수 어르신은 고령에 언어장애까지 있어 의사소통이 힘들다. 그러나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 회원들은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또 하며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에 적극 나섰다.

마하의료회는 7월 25일 오후 조계사 청각 장애인단체 포교원심회와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봉사활동에 김태환 한의사, 치과 양동선 의사(부회장)등 15명이 참여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의료봉사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끝났을 정도로 북새통이었다. 원심회 회원들은 의료봉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아픔과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봉사가 진행된 원심회 법당은 시끄럽지 않았다. 원심회 회원과 마하의료회 봉사자 사이의 수화통역은 원심회 엄재면 회장이 맡았다. 엄 회장님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불편함을 전했고, 의사선생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아픈 이유와 치료방법을 전달했다.



마하의료회 봉사자들이 7월 25일 원심회 법당에서 정기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마하의료회 하상현 팀장은 "가끔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연2회 정기진료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할머니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금선사, 따뜻한 밥상 1주년 회향법회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7월 16일 광주 포에버리더스에서 무료급식 '따뜻한 밥상' 1주년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무료급식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와 신도, 후원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활동보고, 사찰살림경영연구소 김관태 주사 초청 대만 자제공덕회의 활동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자원봉사자 정염임, 박은자 회원에게 개근상도 전해졌다.

일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행의 첫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을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가한 정영희 보살은 "노점상 할머니들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 같다. '밥맛이 없었는데 맛있는 죽을 먹게 돼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선사 십시일반 무료급식 봉사단과 자비신행회는 송정시장 노점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달 5일 진행한 무료 점심급식을 제공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송정시장 행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해진 점심은 약 4000그릇, 동참 봉사자 약 200여 명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실내악단 여연화

창단 법회

퓨전 실내악단 여연화 앙상블 창단법회가 7월 26일 부산불교회관 1층 갤러리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 여여선원 서정혁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참석했다.

정여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 음악을 통해서 때 묻은 마음을 치료하고, 수행하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불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부처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 건 식 품 처 방 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 육 생 상 시 모 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한국은 유일한 간화선의 나라"

버스웰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취임 첫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열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간화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전통으로 봐도 그렇고 실수행을 하는 나라로는 유일하기 때문이죠."

로버트 버스웰(57 · 사진) 불교학술원장은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학술대회에서 간화선의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논문과,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사들의 법문을 들으며 간화선을 체계화하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버스웰 교수가 2009년 6월 불교학술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사업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버스웰 원장은 "미국에서는 중국 · 일본 불교 학자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간화선을 한국수행자와 외국학자들이 한 데 모여 토론을 하면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 외국에는 간화선을 연구하는 학자는 많지만 한국에서 간화선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많다.

버스웰 원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본과 중국 불교를 전공하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을 알리면 어떨까 했다. 간화선 수행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이 실제 간화선 수행현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간화선 학자 9명과 국내 학자 6명이 모여 발표한다. 학자들의 발표 시작 전에는 선사들의 기조발제 법문을, 발표 종료 후에는 진제 · 혜국 · 고우 · 수불 스님이 참석해 회향 법문을 한다. 연구 서적으로만 간화선을 접해 온 국외의 학자들에게 전통적 법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는 8월 14~16일 2박3일 동안 충주 석종사, 문경 봉암사, 순천 송광사, 마곡사, 수덕사, 개심사 등 선원을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버스웰 원장은 "간화선은 화두를 물으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도, 티베트, 남방의 수행과는 다른, 보다 근원적 수행 방법이다"며 한국의 간화선을 평가했다.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 방법인 간화선은 옛 선사들로부터 근현대의 선사들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전수돼 왔다. 이런 전통이 있기에 오늘날도 매년 100여 군데의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또 재가수행자들을 위한 선원들도 생겨나 불교를 믿는 이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도 수행할 수 있게 돼 간화선 수행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버스웰 원장은 "간화선 수행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한국 간화선을 국제화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며 한국 간화선을 국제화하겠다는 서원을 밝혔다.

버스웰 원장은 "외국에 간화선을 알리려면 나부터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간화선을 공부했다. 실제로 그는 태국과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국 스님을 만나 한국으로 왔다. 이후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해 '혜명'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했다.

버스웰 원장은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하는 등 한국불교 소개에 앞장서 왔다. 이런 공로로 1994년에는 불이상을, 2008년에는 만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5년 UCLA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임용된 그는 1993년 UCLA에 한국학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센터로 한국의 종교와 문화 등을 가장 한국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나은 기자

초의의 다도관은 '전다삼매'

<煎茶三昧>

박동춘 소장 박사 논문서 초의 스님 차문화관에 새 시각 제시

'차문화의 암흑기'였던 조선시대에 차문화를 중흥시킨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1786~1866) 스님의 사상과 차문화관을 알 수 있는 논문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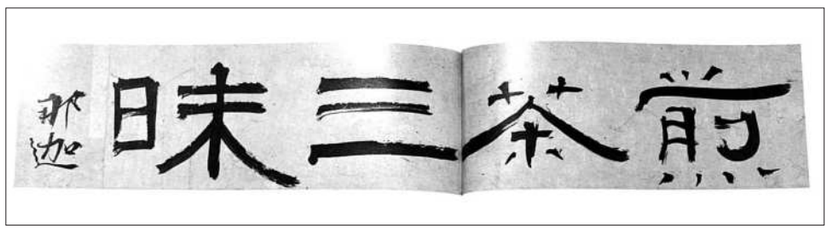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최근 동국대대학원 선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인 '초의선사의 다문화관 연구'에서 초의 스님의 저술인 <동다송(東茶頌)>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와 스님의 제자인 서암 스님이 초의 스님의 유품목록을 기록한 <일지암서책목록(一枝庵書冊目錄)>등의 자료를 통해 초의 스님의 차이론 정립 및 초의차 완성에 대해 고찰했다.

신라 말 선종(禪宗)과 함께 유입된 차(茶)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왕실과 사찰의 주도 하에 중국 송나라와 비견될 만한 차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초의 차산도(茶山圖). 초의 스님은 다산 정약용의 명으로 차산도를 그려 정약용에게 보냈다(오른쪽).
추사 김정희의 전다삼매 지본묵서(紙本墨書)(아래 오른쪽)와 박동춘 소장.





그러나 조선시대의 배불(排佛)정책으로 인한 왕실의 차에 대한 무관심은 차 문화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지 차 문화는 음다(飮茶)의 이로움을 인식했던 문인들이나 수행승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은 조선 후기 한국 차 문화를 중흥해 쇠퇴 위기에 있던 선차를 복원해 초의차(草衣茶)로 불릴 만큼 뛰어난 품격의 차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며 "그가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통해 북학파 경화사족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차의 애호 기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830년대 초의 스님이 봉례품(奉禮品)으로 공여한 초의차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차에 대한 애호와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박 소장은 "김정희, 신위, 정학유 등 당시 북학파 경화사족들은 급변하는 사회 ·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선의 문화자존의식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 일환으로 초의차를 통해 우리차를 알게 됐고 이들은 차의 맑고 담박한 가치가 사람의 마음과 몸을 순화하는 효능을 공유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정희(1786~1856)와 신위(1769~1845)는 초의 스님이 만든 차에 대한 보완점을 일일이 지적함으로써 지속적인 차품의 향상을 도모했으며 김정희는 초의차를 가장 아끼고 애호했던 사람으로 초의 스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박동춘 소장은 초의의 유품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을 발굴해 그의 학문적인 토대가 됐던 도서의 종류, 그가 일상에서 사용했던 다구의 재질과 종류, 찻잔의 유형 등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른 초의 스님의 탕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은 "1970년대 차 문화 운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탕수를 식혀 차를 우리는 탕법이 유행됐는데 이는 초의 스님의 탕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유행하는 탕법인 낮은 온도에서 차를 우려내는 방식은 전통을 이은 초의 스님의 탕법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올바른 탕법으로 돌아갈 기준을 마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지암서책목록>에서는 초의 스님이 교유했던 사람들이 초의 스님에게 보낸 시문, 첩책과 그가 읽었던 도서의 종류도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유품 목록에는 <다경(茶經)>과 <다보서기(茶譜序紀)>가 수록돼 있어 초의 스님이 차 이론을 연구하고 천착했던 도서와 초의차의 이론과 실제가 담겨져 있었다.

또한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다도관도 고찰했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다도관은 일반적으로 다선일매(茶禪一昧), 다선일여(茶禪一如)로 말해졌으나, 이 용어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사용됐을 뿐 아니라 선과 차의 의미를 하나로 보는 것이 불합리 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할 때의 삼매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선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여가 될 수 없다. 즉, 전다삼매(煎茶三昧)라는 것이 박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다도관은 김정희가 '초의차'의 경지를 표현한 '다삼매(茶三昧)', '명선(茗禪)', 전다삼매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전다삼매는 김정희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의 다도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복원 순장녀 송현이 보러 오세요

국립김해博 기획특별전 '비사벌' 9월 30일까지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와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송의정), 창녕군(군수 김충식),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7월 27일~9월 30일 기획특별전 '비사벌'을 공동 개최한다.

'비사벌'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창녕지역의 옛 이름으로, 이번 전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창녕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81호)을 중심으로 창녕지역의 고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창녕 송현동 고분군은 교동고분군과 함께 창녕지역의 대표적인 수장급 무덤군으로 배 모양의 녹나무 관을 비롯해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 신라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되는 장신구와 마구, 무구류, 그리고 순장인골 등이 확인돼 발굴 당시부터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복원된 순장인골 '송현이'를 주인공으로 '비사벌' '비사벌의 지배자' '비사벌 사람들'이라는 3개의 큰 주제 아래 송현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5~6세기 비사벌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품으로는 송현동 6 · 7 · 15호분 출토품을 비롯해 계성과 교동고분군 출토품, 서라벌 세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황남대총, 금관총 출토품 등 200여 점이 전시된다. 그 가운데, 현재 보존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실물자료를 볼 수 없는 녹나무 관을 실물크기로 복원 · 제작해 선보이며, 전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송현이'와 고대 안장복원프로젝트의 산물인 안장복원품도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개막식 당일에는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보돈(경북대학교)과 이우영(가톨릭대학교), 양숙자(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고, 발굴과정과 인골 · 유물의 복원과정 등을 영상물로 제작 · 상영해 관람객들에게 고대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더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간경화증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십시오.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35세의 미혼여성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무속신앙을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은 관둔지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신용불량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일, 식당일 등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힘든 걸 떠나 왠지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보살님은 제가 인덕이 없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니, 저더러 절에 들어가 생활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딱히 죄짓고 산 것도 아닌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고 적응이 잘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절 생활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입문해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신교인 시부모님 돌아가신 후 찾은 절이 이상해요

사찰은 복 비는 곳이 아니라 마음공부 하는 곳

A 우선은 내담자님께서 가까운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우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만나게 돼 사람들을 꺼려했던 내담자님도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릴 것입니다.

기도 후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공양간에서 설거지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면 복도 지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꾸준히 만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걱정을 헤쳐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불교학생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개신교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절을 다니지 않은지 오래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는 저도 신앙생활에 자유가 생겨 절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웃에 절에 다니는 분이 있어 그 분을 따라 절에 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주지스님은 처음 본 저한테 대뜸 생년월일을 대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사주를 봐주시곤 올해 남편과 저한테 삼재가 들었으니,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며 부적을 써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성의를 표해야 한다고 해서 3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바가지를 쓴 것 같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분은 그 스님이 용하다며 다른 절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법문 같은 것을 들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애들이 대학도 갈 테니, 그 절에 보시만 많이 하면 애들한테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가 마음공부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 절을 다니라고 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교에 대해 실망이 크신 듯합니다. 하지만 삼재나, 액땜 등 이런 말에 자꾸 끄달리게 되면 안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근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돈에서 자신을 보호해 참회하고 기도하면, 정신을 맑혀 줍니다. 내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불교는 복을 비는 곳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이웃분의 권유로 올바르지 않은 신행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절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이 대학을 코앞에 두면 자식 걱정에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담자께서는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모님의 불심과 간절함에 힘입어 자녀분 또한 열심히 공부하게 매진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불심을 잃지 마시고, 그 법당이 불편하시다면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덕 높으신 스님들을 찾아,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지역민과 호흡하며 쑥쑥 성장해요

사랑법당 탐방

호국사자사 여름불교학교



호국사자사 여름불교학교에는 100여 아이들이 참여했다. 군법당 불교학교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지만, 사찰 측은 참여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전사령부 군법당은 담력체험·수영교육으로 차별화 '인기'

민간인 신도 70%… 바자회·웰빙캠프·연꽃축제 등 행사 다채

"와아아~잡아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특전사령부 호국사자사(주지 재각 김재욱 법사)에서 난데없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수색, UDT 등 많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령부. 세계 최강의 전력으로 자부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왜일까? 바로 호국사자사에서 7월 23~25일 개최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진다. 특히 불자 부모들은 자녀의 불교적 소양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각 사찰들과 군법당 등은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부대에서 여름불교학교라니 혹자는 의아해 한다. '군부대 특성 상 출입이 제한되지 않을까' '사찰이 아닌 군법당이 여름 불교학교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이다.

하지만 호국사자사의 여름불교학교는 이러한 의문을 속 시원히 해결한다.

사자사는 다도, 참선 등 기본적인 불교 교양을 쌓는 일정 이외에 특전사 부대에 맞는 담력체험과 수영교육, 호국정신 양성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선 사찰들과 차별성을 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험해서일까. 7월 25일 회향식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밝게 빛났다.

이날 회향식에서는 수보리, 라훌라, 아미타 반 중 수보리반이 우승을 차지했고, 황유경 학생(12)이 여름학교 최우수상인 석가모니 상을 수상했다.

황유경 학생은 "남양주 봉선사에 어머니와 함께 매주 다니고 있다. 합동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우승현(14) 학생은 "담력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련장인 비호장에서 호국사자사까지 5~6명씩 내려오는데 선생님들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놀래 켰다. 둘째 날 있었던 수영도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호국사자사는 군법당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일반 사찰 못지않은 활동을 펴고 있다. 송파구 관내에서 불광사를 제외하고 신도 수가 가장 많을 정도다.

주지 김재욱 법사는 "특전사령부 영내에 있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와 곧 들어설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좋아 민간인 신도가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행사도 한몫했다. 불우이웃 돕기를 목적으로 2005년 3월 만들어진 천수회가 진행해 온 사군자반,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와 산사영화제, 사자사 웰빙캠프, 산사연꽃축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군법당 특유의 한계도 있다.

김 법사는 "군법당 특성상 보안 조치가 강하다. 민간인 신도들이 보안검열 등에서 한번 불편을 겪으면 다른 사찰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부사관 부대로 주말 종교활동이 자율이라 참석을 유도하는 것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이어 "향후 새로 짓는 군법당은 영외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지역 주민들과 군장병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군포교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참선을 배우고 있다.

김 법사는 끝으로 "주지가 자주 바뀌는 군법당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민간 신도들이 주축이 된 신행활동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신도조직이 활성화돼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호국 사자사는 도심에 자리한 군부대 법당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1997년 광주 상무대의 이전 후 민간 사찰로 전환, 지역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광주 무각사처럼 2012년 특전사령부 이전을 앞둔 호국 사자사가 지역거점사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발등의 불 4대강 사업 수수방관 안 돼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 스님,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조해붕 신부, 기독교환경연대 대표 김선구 목사 등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대표들과 4대강 대학생 답사단,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은 7월 26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4대강 대학생 답사단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환경운동가들이 7월 22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를 찾은 학생들. 정나래 활동가는 대체식지에서 개체수의 급감, 대체식지의 무효용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단양쑥부쟁이를 설명하는 표지판에는 2년생 쑥부쟁이를 1년생이라고 쓰거나, 단양을 '담양'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대학생 4대강 답사단

대학생 답사단 학생들이 4대강 공사 현장이 보이는 이호대교를 도보로 건너고 있다.



종단 공동기도회에 동참 '4대강 반대' 한 목소리
4대강 넘어 전국 대학생 생태환경 동아리 구상 중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도로에는 피서를 떠나는 차들이 멈췄다 섰다를 반복했다. '더디어도 좋다'는 듯 여유만만한 이들은 뜨거운 여름을 즐기고 있었다. 무심히 달리는 차들을 뒤로하고 푸른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30여 대학생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주 이호대교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무참히 파헤쳐진 4대강 공사현장.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학생들은 준설토가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 된 것을 보고 "저게 다 강바닥에서 파낸 거예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예전 모습과 비교한 학생은 "정말로 이랬나요?"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주최로 꾸려진 대학생 4대강 답사단은 7월 24일부터 안동 하회마을, 예천 구담보, 낙동강 내성천 · 구미보 · 상주보를 둘러보고 26일 남한강 이포보를 찾았다.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은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4대 종단 공동기도회 및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4대강 사업 삽질 멈추는 그날까지' 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4대 종단 성직자 주변을 둘렀다.

기자 회견에는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 스님(서울 한강선원장),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조해붕 신부, 기독교환경연대 대표 김선구 목사 등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대표들과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직자들은 "환경활동가들의 뜻과 행동을 지지한다. 환경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정 홍수기인 지금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되는 사업은 6 · 2지방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환경 활동가들의 뜻과 제안을 받아들여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과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폭력 자제와 민주적 해결 자세, 경찰 공권력의 공정한 집행"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4대강 공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며 활동가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묻고, 생각하고, 토론하기를 반복했다. 학생들은 사전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현장 활동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실체를 알아가면서 자신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반성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한 답사는 알알이 영글어갔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에서 활동 중인 임슬기(이화여대 06학번) 학생은 이번 답사의 단장을 맡았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던 임슬기 학생은 "너무 늦었다. 대학생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임슬기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답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학생들은 교수님, 정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다. 임슬기 학생은 "단편적으로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생태' '환경'을 탐구하고 대안을 실천하는 전국적 규모의 대학생 생태환경 동아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4대강 답사단에는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25명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그 외에도 혼자서 주요 4대강 공사 현장을 답사하던 학생, 4대강을 주제로 다큐를 찍고 있는 영화인, 학교 교지에 실을 4대강 관련 기사를 취재하던 학생들, 남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합류했다. 서울에서 20여 명으로 출발한 답사단은 40여 명으로 인원이 점점 늘어갔다. 이렇게 '4대강과 생태, 자연'이라는 하나의 공통주제를 가지고 젊은 지성인은 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갔다.

정예송(연세대 05학번) 학생은 방학을 맞아 홀로 4대강을 답사하던 중 합류했다. 정예송 학생은 "지금이라도 반대표를 내지 않으면 '기권'이라고 생각한다. 기권은 결국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사현장을 돌고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실상을 알리게 됐다. 나의 이 작은 행동에 여러 사람의 뜻이 더해지면 정부에서도 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송 학생은 "4대강 사업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각자 주변 친구 10명에게 만이라도 현실을 알린다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생회 회원이라는 정현우(고려대 07학번) 학생은 "불교의 생명관이나 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봐도 이 사업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군은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다"며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습지와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학생들은 곧 공사로 지금의 모습이 사라질 강에서 물놀이를 했다. 물에 발을 담고 있던 학생에게 물고기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얘네들이 우리한테 4대강 공사 막아달라고 오는 게 아닐까?"

한 학생의 말에 애잔한 감동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흙길을 밟으며, 물에 몸을 담그며, 하늘을 벗삼아, 풀벌레 소리에 귀기울이며 지내온 3박4일 동안 학생들은 자연의 소리를 들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더위야 물렀거라! 사찰음식 나가신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심신이 지친다. 밤잠을 설친데다 무더위에 몸이 축 처질 때면 생각나는 것이 별미(別味)! 보양식들이 눈앞에 삼삼하지만 지금은 '영양과잉' 시대다. 고칼로리의 육류 요리만이 건강을 지키는 능사는 아니다. 사찰음식 대표단체 '한국사찰음식연구회'가 추천하는 더위를 누르는 사찰음식 별미 6선을 소개한다. 식재료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사찰음식이 올 여름 당신의 건강을 책임진다.

음식 협찬=한국사찰음식연구회 대안 스님 , 정리=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정보센터 5층에 위치한 사찰음식점 '발우공양'에서 대안 스님이 직접 사찰음식을 조리하며 그 효능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해인사의 별미 상추불뚝김치



재료 : 상추 1단, 소금 반 큰술, 배 반개, 생강 1쪽, 고춧가루 한술,

만드는법
1. 상추는 밑동까지 잘라 소금물에 적셔 놓는다(소금 반술, 물 3컵)
2. 맑은 생수 3컵에 고춧가루 한 술을 베보자기에 넣어 고춧물이 배어 나게 한다.
3. 배즙과 생강, 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4. 용기에 상추를 담고 국물을 부어 놓는다.
5. 상온에 하루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 이틀 후부터 먹는다.

가냘픈 몸매로 변신을 시도한 호박채전

재료 : 호박 1개, 전분 한술, 식용유 반술, 들기름 반술, 초고추장(고추장 1, 조청 1, 식초 0.5, 매실청 1)



만드는 법
1. 호박을 돌려깎기로 곱게 채를 썬다.
2. 볼에 전분을 한술 넣고 호박채를 버무린 다음 전분을 털어낸다.
3. 팬에 불을 댕기고 달아오르면 기름을 두르고 호박채를 얇게 펴 놓고 팬에 닿은 면의 호박이 익으면 그때 뒤집는다.
4. 뒤지기로 꾹꾹 누른 다음 접시에 담는다.
5. 매실청을 넣은 초고추장을 곁들인다.

이열치열 능이버섯 감자옹심이

재료 : 감자 4개, 두부 1모, 능이버섯 20g, 표고버섯 4개, 쌀가루 2 큰술, 맛국물 5컵(다시마와 건표고를 넣고 7분간만 끓인 물), 소금 약간, 콩물 : 대두, 2/1 큰술, 물 2/1 큰술

만드는법
1. 콩물 만들기(하루 전에 콩을 불린 다음 물을 넣고 갈아둔다)
2.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베보자기에 넣고 물기를 짠다.
3. 두부는 으깨 베주머니로 짜서 감자와 섞은 다음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한다.
4. 옹심이를 만든다.
5. 능이는 씻어 물 한 컵 정도에 불린다. 이때 불린 물을 버리지 않고 국물에 넣는다.
6. 맛국물에 능이를 넣고 끓인다.
7. 옹심이를 넣고 끓인다. 옹심이가 떠오르면 콩물을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피부에 윤기 더하는 가지냉국

재료 : 가지 2개, 청고추 2개, 홍고추 반개, 집간장 반술, 솔잎효소 한술, 식초 한술, 물 3컵



만드는법
1. 가지는 김이 오른 찜기에 5분간 쪄낸다.
2. 고추는 다진다.
3. 집간장은 끓여 놓는다.
4. 잘 쪄진 가지를 식혀서 손으로 갈라서 볼에 담는다.
5. 가지에 집간장과 참깨를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5. 솔잎효소와 식초를 넣고 물을 부어 놓는다.

열기를 식히는 오이선

재료 : 오이 2개, 도라지 1뿌리, 밤 2개, 당근 30g, 석이버섯 5장, 잣 반술, 짠무 30g,
촛물 : 식초 1술, 설탕 1술, 소금 약간, 물 1술

만드는법
1. 오이는 소금으로 비벼 씻은 다음 물기를 닦고, 옆으로 놓고 얇게 잘라낸다.
2. 안정감이 있게 만든 다음 오이에 칼집을 넣는다.
3. 도라지는 곱게 채를 썬 다음 소금과 설탕 식초를 넣어 무친다.
4. 당근도 곱게 채를 쳐서 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는다.
5. 짠무도 물에 우린 다음 곱게 채를 썰어 참기름과 깨를 넣고 무친다.
6. 석이버섯은 손질하여 채를 썰어 집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다음 팬에 볶는다.
7. 대추는 씨를 빼낸 다음 곱게 채를 썬다.
8. 밤은 얇게 저민 다음 곱게 채를 썬다.
9. 잣은 분쇄기에 뭉치지 않게 간다.
10. 도라지, 밤, 대추, 당근, 석이버섯, 잣을 오이사이에 끼어 넣는다.



국물이 얼큰한 김치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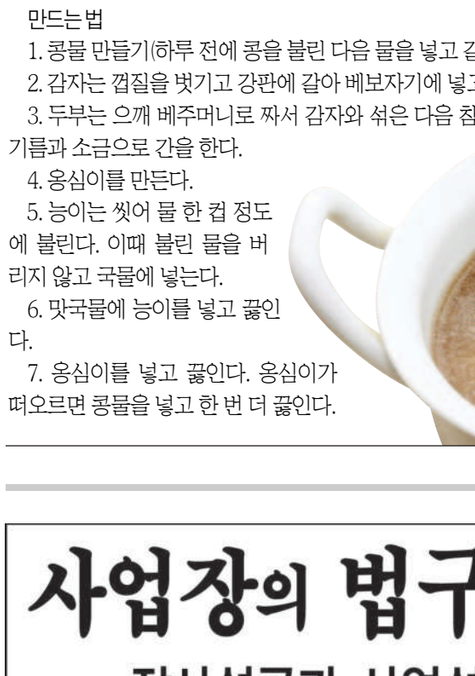
재료 : 열무 1/4단, 얼갈이 1/4단, 생강 1쪽, 찹쌀가루 1컵, 고춧가루 1컵, 생수 2ℓ, 굵은 소금 3 큰술(채소절임용), 사과 1/2개, 배 1/2개, 미나리 1/3단, 오이 1/3개, 무절임 50g, 수박 4쪽 , 건냉면 4인 분량(1인분 170g), 다시마효소(또는 솔잎효소) 2 큰술

만드는법
1. 찹쌀가루를 찬물에 잘 푼 후 냄비에 넣어 끓여 찹쌀 풀을 쑨다.
2. 큰 그릇에 생수를 붓고 고춧가루를 체에 걸러 낸 뒤 찹쌀 풀을 넣어 섞는다.
3. 면 보에 배와 사과, 생강을 갈아 넣고 고춧가루 찹쌀 물에 넣는다.
4. 얼갈이와 열무, 미나리는 깨끗이 손질한 후 3~5cm로 썰고 고춧가루 찹쌀물에 넣어서 상온에서 2일 동안 익힌다.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면 물김치가 익어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5. 무는 얇게 썬 다음 물(4):식초(1):설탕(1):소금(0.3):백련초가루(0.3)를 섞은 배합초에 절인다.
6. 오이는 얇게 저며 소금물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꼭 짠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민다.
7. ⑤의 물김치 국물에 다시마 효소를 넣어 간한다.
8. 냉면 면을 삶아서 찬물에 깨끗이 여러 번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릇에 담은 후 물김치국물과 건더기, 배, 오이, 무절임을 고명으로 얹는다. 기호에 따라 통깨, 수박 등을 곁들인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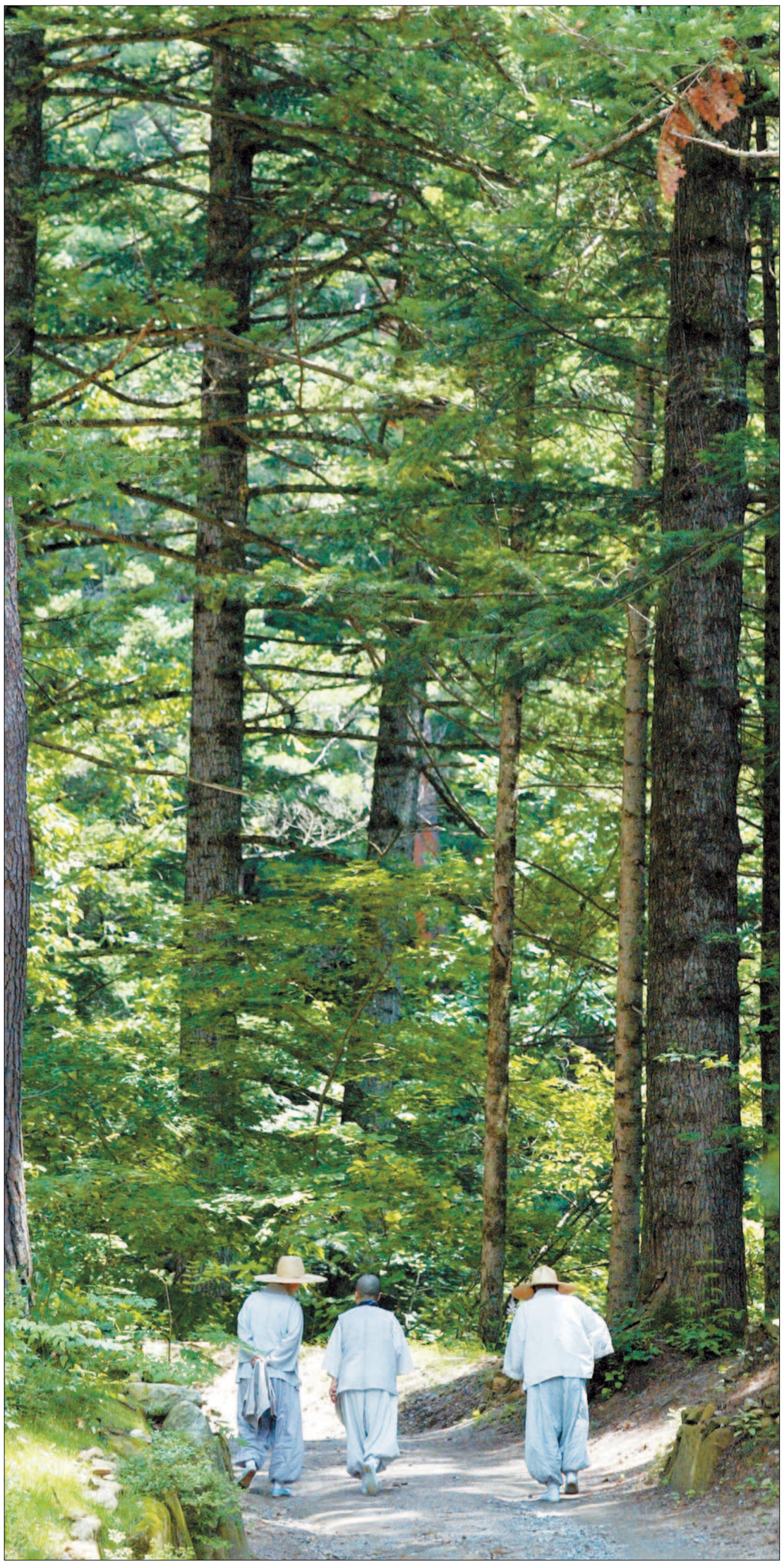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절 곁의 여름을 만나다

절에 가는 길. 걸어야 하고 때론 올라야 하는 길. 이 무더운 여름에 무엇이 절로 향하게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걸어야 하고 올라야 하는 길에서 우리는 먼저 절 곁의 자연을 만나게 된다. 숲길에 들어서게 되고, 물소리를 듣게 되고,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천 번 만 번의 생각이 바람 한 점에 스러지고, 천 근 만 근의 몸뚱이는 땀방울 하나에 가벼워진다. 숲에서 쏟아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에 두 눈이 멀고, 쉼 없이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가 멀어갈 때 쯤 멀리서 일주문이 다가온다. 풍경 소리에 다시 눈을 뜨고 목탁 소리에 다시 귀를 열면 부처님 세상이다.

부처님께 보이려던 마음의 반은 숲에서 잃었고, 나머지의 반은 물가에서 잃었고, 그 나머지의 반은 새소리가 물어갔다. 절보다도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와 살고 있었던 자연. 절에 가는 길에는 자연을 먼저 만나게 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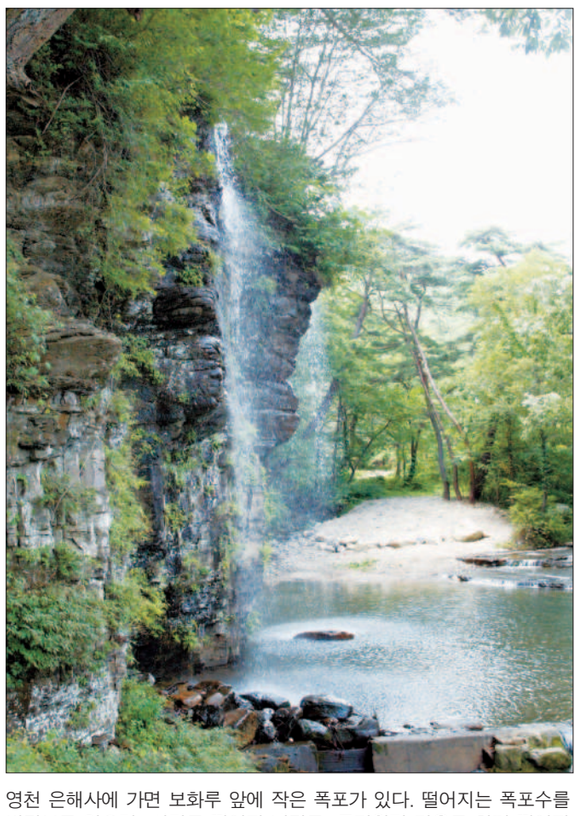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고즈넉한 산사에 머물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템플스테이. 대나무 숲에 앉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자연 속에 머문다는 것이 언제부턴가 힘든 일이 되었다. 사진은 밀양 표충사 템플스테이.
사진제공=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월정사 육수암 가는 길이다. 스님 세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전나무 숲길을 걷는다. 나무가 높고 숲이 깊으면 길도 깊어진다. 깊은 길을 걷고 있으면 '나'는 그 만큼 작아질 수 있다.



▼풍광으로 이름 난 절이 한 두 개가 아니겠지만 '풍광' 하면 봉화의 청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청량산의 바위를 부처님으로 모신 청량사는 자연의 일부처럼 숲에 안겨있다. 사계절의 풍광이 변화무쌍해서 자연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도량이다.



영천 은해사에 가면 보화루 앞에 작은 폭포가 있다.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도 떨어져 내리고, 무거웠던 마음도 함께 떨어져 내린다. 여름은 자연이 모두 일어나 울력하는 계절인 것 같다. 덥다고, 지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뜬히 여름을 나고 자연을 나자.



어디에서 왔을까. 쉼 없이 흘러서 하필 절가에 닿았을까. 흐르는 작은 개울물도 정해진 길을 또박또박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승보사찰 송광사. 삼청교와 우화각 위로 보이는 개울물이 더위도 잊은 채 또박또박 흘러가고 있다.

호랑이 이리 날짐승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라 하셨는데



시인 조태일의 탯자리
⑮ 곡성 태안사(泰安寺)

'나라가 위태로웠던 칠십년대 말쯤 / 아내와 어리디어린 세 아이들을 데리고 / 고향 떠난 지 삼십년 만에 / 내가 태어났던 태안사를 찾았다. 〈중략〉

그리고 두 번째로 / 임신년 겨울, / 팔십을 바라보는 어머님을 모시고 / 아내와 이젠 웬만큼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 터버터벅 태안사를 찾았을 땐 / 백골이 진토된 / 증조부와 조부와 아버님이 / 청화 큰스님이랑 함께 / 껄껄껄 웃으시며 우리들을 맞았다.'

[태안사 가는 길 1]

'국토', '식칼론'의 시인 조태일(趙泰一 · 1941~1999)은 30년 만에 자신의 탯자리인 태안사를 찾는다. 그의 아버지 조봉호는 대처승으로 태안사의 주지였다. 아침저녁 아버지의 목탁소리와 독경소리를 들으며 자란 조태일은 여순사건 때 아버지를 따라 태안사를 떠나게 된다. 7살 때였다. 그가 태안사를 30년 만에 찾은 것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다. 12살 때였다.

"나 죽고 30년이 지난 다음에나 고향 땅을 다시 찾아라."

그 유언은 7남매 중 넷째였던 그에게만 남겼다고 한다. 왜 30년 뒤인지, 왜 자신에게만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조태일 자신도 평생 모르고 살았다.

한바탕 소나기 지나간 숲에서 매미가 뜨겁게 울어댔다. 숲길 끝에 난 일주문엔 노을이 비꼈고, 닫힌 대웅전 어간 뒤에서는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2년(742)에 신성한 승려 세 분이 창건한 것으로 사적에 전해온다. 그 후 혜철(慧徹)국사가 당나라에서 법을 전수받고 돌아와 구산선문의 동리산파를 이루었다. 고려에 접어들어 광자대사가 절을 크게 일으켰고, 정유재란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3년 9월 7일, 태안사 길목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이 세워진다. 시인의 4주기 때였다. 시인은 한 시절도 편안한 시절 없이 살다갔다. 일제강점기, 여순사건, 한국전쟁, 4.19, 5.16…. 그리고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느라 고단했던 시절까지. 특히 그 시절은 그를 뜨겁게 달구고 차가운 삶 속으로 내몰았다. 시집의 판매금지와 투옥. 역사는 어두웠고, 시인의 삶도 어두웠다. 그는 시를 쓰는 것으로 어두운 역사 곁에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시가 '국토'와 '식칼론'이다.

'뻑다귀와 살도 없이 혼도 없이 / 너희가 뱉는 천 마디의 말들을 / 단 한방울의 눈물로 쓰러뜨리고…' 〈후략〉 [식칼론2]

그의 시들은 한 방울의 눈물이었고, 시인은 그 눈물로 고단한 시절을 버텨야 했다.

'모든 목소리들 죽은 듯 잠든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1리 // 九山의 하나인 桐裡山 속 / 泰安寺의 중으로 / 서른다섯 나이에 열일곱 나이 처녀를 얻어 // 깊은 산골의 바람이나 구름 / 멧돼지나 노루 사슴 곰 따위 / 혹은 호랑이 이리 날짐승들과 함께 / 오손도손 놀며 살아가라고 / 칠남매를 낳으시고 // 난세를 느꼈는지 / 산 넘고 물 건너 마을 돌며 / 젊은이들 모아 夜學하시느라 /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 여순사건 때는 / 죽을 고비 수십 번 넘기시더니 / 땅뙈기 세간 고스란히 놓아둔 채 / 처자식 주렁주렁 달고 / 새벽에 고향을 버리시던 아버지. // 삼십년을 떠돌다 / 고향 찾아드니 아버지 모습이며 음성 / 동리산에 가득한 듯하나 // 눈에 들어오는 것 / 폐허뿐이네 적막뿐이네.'

[원달리의 아버지]

위의 시 한 편이 시인 조태일과 그 일가의 역사다. 노루 사슴, 심지어 호랑이 날짐승과도 오순도순 살아야 했던 시인이 '국토'나 '식칼론'과 같은 거친 숨소리를 쏟아내야 했던 것은 어두운 시절이 지게 한 짐을 기꺼이 졌을 뿐 그의 본성은 아니었다. 그의 다른 시에서는 곡괭이에 찍혀 나온 병사의 백골이 눈 시린 동자승이 되고, 처녀 적에 달빛을 좋아해 늘 울멍울멍했다고 나오는 누나는 태안사 염불소리 들으며 영남땅에 누워 있다고 나온다. 그의 만년의 시들은 노루 호랑이와 오순도순 놀던 동심으로 돌아가 쓴 시들이다. 결국 조태일 시의 시작점과 귀착점은 태안사였던 것이다.

저녁 구름이 석탑 위로 몰려왔다. 태안사에 간다면 노루, 사슴, 호랑이, 날짐승과도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동심으로 갈 일이다. 시인이 되어 일주문을 나설 것이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03년 9월 7일 시인의 4주기에 맞춰 태안사 길목에 문을 연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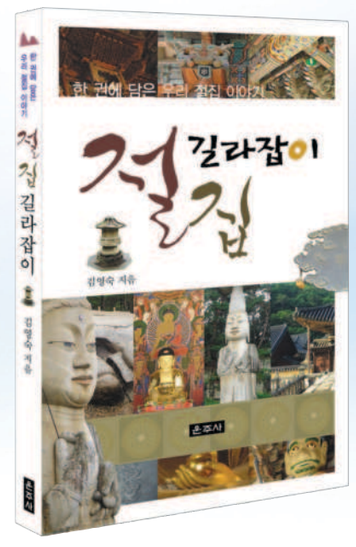
한 권에 담은 우리 절집 이야기!

절집 길라잡이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절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런 모양으로, 왜 그런 구도로, 왜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준다.

김영숙 저 | 신국판 변형 | 컬러 | 224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6>

생사를 빠져나올 수 있는가?

법당에서 대중에게 설법했다.
"불경을 읽는 것도 생사 속에 있는 것이고, 경을 읽지 않는 것도 생사 속에 있는 것이다. 자, 그대들은 어떻게 하여 생사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떤 학승이 즉각 말했다.
"다만 그 어느 쪽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진실하다면 좋겠지만, 만일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사를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上堂云 看經也在生死裡 不看經也生死裡 諸人且作麽生出得去
僧便問 只如俱不留時如何
師云 實卽得 若不實卽得生死

깊고 깊은 경지로 말한다면 불경을 읽는 것도, 참선을 하는 것도, 중생을 제도해 복을 짓는 것도 모두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불경을 읽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는 이것은 더더욱 생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학인은 어느 쪽에서도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양자 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양자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실로 가능한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대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주 스님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납자들은 한 번 생사를 벗어나는 견해를 밝혀보길 바란다. 한 생각 떠오르는 기막힌 대답이 있으면 즉시 선사를 찾아가서 점검하길 바란다. 이 납자에게 묻는다면 즉시 어떤 한 행동을 해서 벗어나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기술하도록 하겠으나, 조주 스님의 질문을 평한다면 "조주 스님의 그 물은 촘촘해서 여간하여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예리한 칼날 끝이 잘 들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야 말로 예리한 칼이지만 잘 든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問 利劍快時如何
師云 老僧是利劍 快在什麽處

칼이 잘 들을 때는 마음이 잘 조정될 때에 비유한 것이다. 마음이 흰 소처럼 잘 길들여져서 화나는 일이 닥쳐와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시비를 걸어와도 무덤덤하고, 물질을 보아도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 시기, 근심, 우울함도 없는 참으로 막힘이 없고 자유로운 경계이다.

잘 드는 칼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함에 적합한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선사의 할이나 어떤 비유, 그리고 선적인 행동은 도에 대해 완전히 사무쳐 있지 않으면 절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선사들은 대개 하고 싶은 대로 중생의 마음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므로 '잘 드는 칼(利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조주 스님은 스스로를 잘 드는 칼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평생 마음을 다스려온 노승이라, 이제는 어떤 일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뿐더러, 중생의 마음을 요리하는 것에도 전문가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그렇지만 내 검이 잘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 드는 것인지, 나의 법문과 선적 지시가 중생에게 유용하게 어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에 마음이 동요된다면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선지식이라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능숙한 경지에 대해서도 절대 자랑이 없어야 한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이 다가 와도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말끔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큰 난리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회피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마침 잘 됐어."

問 大難到來如何回避
師云 恰好

흡호(恰好)는 '마침 잘 됐어' '음, 좋아' '맞아 맞아, 맞는 말이야' 등의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서는 '마침 잘 됐어!'라는 뜻으로 본다.

이것은 조주 스님의 선적 그릇(禪器)을 알아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대부분 난리가 닥쳐온다면 잔뜩 근심을 품고 피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나 선사는 이 난리를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난리가 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지구의 기상 이변은 멀지 않아서 곧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때에 선(禪)을 닦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난리를 맞이해야 할까. 생사는 본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막상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기분에 젖어 있을 것이다. 죽음이 닥쳐온다면, 지구의 종말이 다가 온다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분하게 마음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인생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인데, 이 죽음에 마음이 동요된다면 내가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혹 깨닫지 못했다 해도 죽음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 내가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해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사도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이제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맞이하자' 하면서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마음이 생하면 여러 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면 여러 가지 법이 멸하는 것이다.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한 학승이 물었다.
"다만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과 같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자네의 그 일문(一問)을 허락하겠네."

師示衆云 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種種法滅 你諸人作麽生
僧乃問 只如不生不滅時如何
師云 我許麽者一問

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種種法滅'은 부처님의 법문이다. 마명보살이 <대승기신론>에서도 이 말을 했다. 조주 스님이 이 법문을 대중에게 설법하면서 대중의 의견은 어떠한가 물은 것이다.

질문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이 '적합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다. 눈앞에 무엇이 보여도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어졌다 해도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 진실이다. 그러한데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생하고 멸하게 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그 질문 자체만 가지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야, 맞아"하고 긍정한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❼ 수심요론(修心要論)

'본래진심' 지켜야 열반 터득

홍인은 <금강반야경>을 수지하면서 심성의 본원에 철저함을 본지로 삼아 수심(守心), 즉 수본진심(守本眞心)의 참학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을 현창하기 위해서 <수심요론(修心要論, 最上乘論, 一乘顯自心論)>을 저술했다. 후에 혜능은 <수심요론>에 대해 '홍인대사가 범부를 깨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심(修心)의 도를 보여준 요론'이라 정의하고, 그 근본사상은 본래 청정한 일심을 자각하고 일깨우는 수심(守心)에 있다' 고 평가했다.

대만홍인(大滿弘忍, 601~674)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는 정각(淨覺)의 <능가사자기>는 그의 스승인 현색(玄賾)의 <능가인법지(楞伽人法志)>의 기록을 인용했다. 홍인의 속성은 주(周)씨이고 기주 황매현 출신으로 대업 3년(607) 7세 때 당시 여산에 머무르고 있던 도신을 참문하고 30년 동안 곁에서 모셨다.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현경 5년(660) 황매현 빙무산에 칙사가 와서 경사(京師)로 와달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다. 칙사가 다시 청했으나 그것마저 고사했기 때문에 칙사는 경사에 돌아가 홍인에게 의약품을 보냈다. 홍인의 회하는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선종이 후세에 대성황을 이루는 기초가 여기에서 구축되었다. <능가사자기>에 의하면 홍인은 함향 5년(674) 74세로 입적했다.


중국 호북성 황매현의 홍인 대사. (현대불교자료)

홍인의 선은 자성청정심에 계증하는 것을 중요한 안목으로 삼아 정심(定心)에 근거한 즉심즉불의 도리를 고조시킨 점을 볼 수가 있다. 그 저술로 간주되는 <수심요론>(본 제명은 <기주인화상도범성취오도해탈종수심요론(蘄州忍和上導凡趣聖悟解脫宗修心要論)> <도범성취오해탈종수심요론(導凡聖趣悟解脫宗修心要論)>이다)에는 수심(守心)의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다. 텍스트로는 <돈황겁여록>(<一乘顯自心論>으로 수록) 제13 및 <소실일서> 수록본, 스타인본 2669, 3558, 4064 및 페리오본 3434, 3559, 3777, 용곡대학본(龍谷大學本)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대정신수대장경 제48권에는 <최상승론(最上乘論)>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돼 있다. 모두 14단락의 주제로 나뉘어 수심(修心)의 도리에 대한 문답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주인화상도범성취오도해탈종수심요론>의 제목을 해석하면 '기주의 홍인화상이 범부를 이끌어 성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해탈의 종지를 깨치도록 말씀해주신 마음을 닦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의 본체는 몸과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해 생멸이 없기 때문에 분별과 집착할 것이 없는 줄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성이 원만한 청정심이야말로 자기의 본사(本師)이기 때문에 시방의 제불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심(自心)이 본래 청정해 불생불멸 줄을 터득하는 방법은 진여불성은 본래청정하다는 자각해야 한다. 마음이 자기의 본사(本師)이기 때문에 진심(眞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데도 범부와 부처의 차별이 있는 것은 진성을 알고 모르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지니는 마음자세는 본래심을 자각하는 여부에 따른다. 때문에 본래진심(本來眞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열반의 근본이고 깨침의 근본의 가르침이며 십이부경의 으뜸이고 삼세제불의 시조이다. 이에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일체의 차별상을 초월해 조작이 없고 적멸한 무위의 경지인 열반이 터득된다. 이와 같은 수일심(守一心)은 곧 본래진심을 지키는 것으로서 일체경의 근거이고 삼세제불의 개조(開祖)이다.

수일심의 첫걸음은 자기의 본래심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관무량수경>에 의거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며 마음은 전방을 수평으로 향해 16관상법을 통해 본래의 진심을 잃지 않고 늘 상 깨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심의 근원이 드러나고 일체의 심의(心義)에 모든 서원이 만족되며 일체행이 원만해 생사의 고통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이에 무기심(無記心)에 빠지지 말고, 도달한 경지에 자만하지 말며, 팔풍(八風)에 흔들리지 말고, 아소심(我所心)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신심을 갖추고 조급해하지 말며 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집중하면 심식(心識)을 관찰해야 한다. 출가자의 본분을 수지하되 일체의 행위에 좌선을 근본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일불승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심요론>에 보이는 수심(守心)의 사상은 도신에게서 전승된 것으로 일심의 본체가 불성임을 알아 그 불성이 동과 정의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 평등일미임을 관찰하는 것으로 승화됐다. 이 일심의 진여 곧 불성을 지킨다는 것이 홍인의 선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후에 그 제자 혜능은 <수심요론>에 대해 '홍인대사께서 범부를 깨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심(修心)의 가르침으로 안내해 준 요론'이라 정의하고, 그 근본사상은 수심(守心)에 있다고 천명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 · 래정(來情) · 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 · 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 · 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 · 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 (메모)** 또한 백미 입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시간은 살 같이 지나가니 공부 미루지 마세요



요덕사 회주 대선 스님

오십대 수좌에게 "너희들 공부는 죽도 밥도 아냐" 질타하고파
공부 안하고 그냥 살다 죽는 것은 '송장 하나 지키다 가는 것'

칠월의 햇살은 거칠고 뜨겁다. 강한 햇살과 지기(地氣)를 흠뻑 받아들인 나무들의 짙푸른 잎들이 바람에 사운거린다.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녹색 그늘이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깊은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는 두견새와 숨넘어가듯 급박하게 울어대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한 여름 숲의 정적을 깨뜨린다. 요덕사를 가기 위해서는 아래 절인 홍련암을 거쳐야 한다. 홍련암은 연꽃으로 화장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활짝 핀 연꽃 위로 내려앉는 햇빛은 기품 있고 고결해 보인다.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연꽃의 향기는 홍련암을 채우고도 남는다. 홍련암은 대선 스님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하여 생가를 절로 만든 사연을 안고 있다. 연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연못을 만들고 그곳에 홍련을 심었다. 이제 홍련암의 연꽃은 사진애호가들이 몰려드는 완주의 명물이 되었다.

대선 스님을 꼭 이태 만에 뵙는다. 스님은 비승비속(非僧非俗)으로 사는 이를 뭐하러 또 찾아왔느냐고 퉁을 놓는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스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공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든다. 스님의 푸른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변함이 없다. 도인의 경계는 '불이 얼음을 녹이면 다시는 얼음이 되지 않으며,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나면 돌아올 기세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던가. 대선 스님이 똑 그러하다.

스님은 어렵게 공부했던 봉암사시절을 떠올렸다. 좁은 선방에 스무 명이 앉으면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인데도 사부대중을 받았다. 비구가 한 7~8명 정도 되었고,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한 곳에 모여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다. 환경은 그리했지만 그곳에 성철스님과 향곡 스님이 계셨기에 공부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요즈음은 옛날에 비해 선방도 많고 수좌들도 더 많은데 왜 공부인이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공부인이 나오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지, 뭐하겠어요? 밥만 축내는 것이지. 옛날 노스님들이 우리들보고 '너희들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가?'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어요. 욕심인지는 몰라도 오십대쯤 되는 수좌들을 보면 노스님들처럼 '너희들 공부하는 것 보면 죽도 밥도 아닌 것 같다'고 질타를 하고 싶어져요."

대선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천일을 세 번이나 보탠 삼천 일간이나 솔잎, 쌀가루, 콩가루만을 먹으면서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했다. 갑사의 북사자암에서는 한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은 채 꽁꽁 언 몸으로 화두를 잡고 사년동안 정진하였다. 스님은 수행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평생을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했다. 수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스님의 수행담이 회자되고 있다.

대선 스님은 그 시절이 그리운지 향곡과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향곡 스님은 남방도인이었어요. 향곡 스님 회상에서 살 때 그 분을 척 바라보기만 해도 '공부를 안하면 저 양반이 나를 죽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형형했지. 화탕하고 걸탕진 것이 선방수좌들이 이끌릴만한 모습을 타고난 참으로 멋이 있는 도인이었어요. 성철 스님은 말쑥하니 잘 생긴 것이 천재의 모습이었어. 눈빛이 살아있으면서 학 같은 모습이었지요."

봉암사시절 두 스님께서는 한산과 습득처럼 짝이 되어 십 수 년을 같이 공부하고 법거량을 나누었다.

대선 스님이 공부하던 시절은 나라가 가난하고 절집이 가난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다. 누더기 옷 한 벌이면 족했고, 멀건 죽 한 그릇 먹고도 깨닫고야 말겠다는 분심과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돈만 가지면 산호랑이 눈썹도 빼 먹을 수 있는 시대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승가는 세속과는 달라야 해요. 옛날에는 좌복이 이불이 되고 그것 하나로 견디면서 공부했어. 옛날에 노스님 아래에서 아프다고 하면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 하고는 당장 쫓아냈어. 그러니 아프다는 소리 할 수도 없고 그저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했어요. 그것이 공부인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었던 거지. 빈도(貧道)로서 일종식하고 금식하고 탁발하고 그랬어. 기한이 발도심(飢寒發道心)이라고 춥고 배고플 때 도를 구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여. 지금이라도 종단이 살아나려면 가난을 자초하여 좀더 가난하게 살아야 해. 옛날의 중들은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선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 면모가 풋풋하고 때깔이 났어요."

스님은 말미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일어난 '10·27 법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때 우리가 새로이 발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라 했다.

"10·27법난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불교 근대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곳에도 전화가 왔고, 홍련암보다 더 못한 움막집을 짓고 사는데도 군관민 합동으로 해서 쳐들어왔다더군. 전국의 사찰들이 그놈들의 군홧발에 짓밟혔을 때 월명암의 월인 스님 한 사람만이 큰소리쳤어. 군인들이 신발신고 법당에 올라오는 것 보고 '이놈들! 어디 감히 부처님도량을 짓밟는가?' 하고 호통을 쳤더니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하여 그냥 갔다고 하더군.

요즈음 '10·27 법난' 과거규명 한다고 야단들인데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야. 나는 잘했는데 저쪽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출가발심으로 돌아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야지. 그렇게 했다면 종단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갔을 것이야."

스님의 말씀은 거침없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발전이 있단다. '예전에는 공부가 좀 시원찮다 싶으면 장군죽비로 죽어라고 막 때렸지'라고 덧붙였다. '그때는 공부하다가 죽으면 영광으로 생각할 때'였기에 맞는 이나 때리는 이나 공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요즈음의 선방분위기는 예전과 달라서 그렇게 때렸다가는 소송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라면서 씁쓸해 했지금은 그러한 도인들이 귀한 시절이고 설령 지도자가 있고 좋은 도량이 있다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요즈음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서 공부인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 스님의 견해이다.

"옛사람이라고 다 근기가 강하고 요즈음 사람들이라고 허약한 근기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주의 기를 받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운을 받는 것이 소우주인 우리의 몸입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나와서 모유를 먹여야 하는데 요즈음은 다들 소젖을 먹이잖아요. 모유는 최고의 약성(藥性)이 함유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아기의 몸에 맞게 맞추어지는 최고의 영양식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라. 어머니의 품과 모유는 대근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는 좀 알아야 해요.

요즈음 행자들이나 사미승들은 다들 집에서 귀하게 자라서인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는 도인이 나오지 않아요. 구식으로 돌아가야 도인이 나오지 현대 신식으로 해서는 도인이 나오지 않아요."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실천수행만이 깨달음의 지름길



다.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장군죽비를 휘둘렀는데, 한 대 때렸는데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야.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인데, 혹시 죽었나 하고 겁부터 나데요. 그만큼 서로가 믿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지.

향곡 스님은 장군죽비를 직접 만들었는데, 한 번 맞으면 맛이 나게 묵직하게 만들었어요. 향곡 스님은 몸집이 커서 장군죽비로 내리치면 덩치 좋은 사람도 앞으로 푹 꼬꾸라져요. 장군죽비로 죽을 정도로 맞아도 깨닫고야 말겠다는 분심에 비하면 아픈 것도 아니었지."

공부 안 하고 그렇저렁 살다가 죽는 것은 평생 '송장 하나 지키다'가 가는 것임을 명심하란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늙어서 이제 공부해야겠다 싶어 보면 그때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앉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것이 중생들의 살림살이다.

"요즈음 내가 한탄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새벽 예불을 올리는데 전에만 못해요. 춘성 스님은 팔십이 되었는데도 새벽 3시면 당신이 직접 새벽에 1시간씩 목탁을 쳤어요. 그때 도봉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탁치고 염불했는데, 마치 사자가 '으흥으흥' 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옛날에는 지도급에 있는 스님, 수행력이 있는 스님들이 먼저 첫새벽에 일어나 목탁을 침으로서 기상나팔이 되었고 모든 공부가 그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부처님의 출가 목적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에게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대선 스님이 현대인들을 진단했을 때 '생로병사만큼 다급하고 급한 일이 없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심을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 앞에서 복 달라고 조르지만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란다.

"죽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아서, 실제로 당해보지 못한 것이라 말로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죽는 것이 아직 먼 것 같지요? 나부터도 그래요. 오십대에는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지. 불가에는 백골관(白骨觀)이 있어요. 우리 중생은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으니 대들보에 해골 하나 달아놓고 공부한다면 무상(無常)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힘 드는 일이니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신이 영원할 것 같아 여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는데 그것이 바로 망상이요 헛된 꿈이란다.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니 공부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옛날에는 법문 한 마디 듣기 힘들었어요. 요즈음 컴퓨터에도 텔레비전에도 천지가 법문으로 넘쳐나고 있어."

'법문이 없을 때 오히려 공부인이 나왔다'는 스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하다. 스님의 말을 빌자면 '남이 침 발라놓은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것, 스스로가 실천수행하는 것만이 깨달음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란다.

요덕사의 대밭이 참으로 좋다. 산책삼아 푸른 대밭으로 걸어가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도인의 풍모가 느껴진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대선 스님은 ...

19세에 계룡산 갑사에서 만공 스님의 제자인 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도봉산 망월사에서 10년 동안 춘성 스님 시봉, 해인사 성철 스님 회상에서 10년 동안 정진. 그 후에도 금오 스님, 향곡 스님의 문하에서 공부. 20여 년 전부터 생가에 홍련암을 지어 정진. 완주 수봉산 기슭에 요덕사 정진원과 오도암 등의 선방을 지어 재가불자들을 지도.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일본불교 시조이자 관음 화신으로 여겨져

"마음 깊이 삼보를 공경하라. 삼보는 불 · 법 · 승이다. 즉 사생이 마침내 귀의할 곳이며, 만국의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어느 세상, 어느 누가 이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 매우 악한 인간은 적지만 이들도 이 법을 잘 가르치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삼보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바룰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574~622)가 제정했다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인 '헌법 17조'의 두 번째 조문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쇼토쿠 태자는 이처럼 불법을 비롯하여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마저 고대국가를 경영하는 데에 활용한, 문자 그대로 성덕을 베푼 이상적인 인물로 받들어지고 있다.



구(舊) 일만 엔 지폐에 사용된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

역사적인 면에서는 일본 최초의 여왕인 스이코(推古) 왕의 섭정으로 임명되어 앞의 헌법을 제정, 고대국가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점, 관위 12계를 제정,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는 점, 역법 · 연대기를 작성하여 국사편찬을 시작하였다는 점, 동아시아 국가에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의 안정을 꾀한 일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당시의 삼국과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왕권국가의 확립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 설화나 전설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후대의 태자신앙 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화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고구려의 승려인 혜자(惠慈)로부터 불법을 배웠는데 한 번은 <법화경>의 경문 가운데 한 자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혜자는 다른 나라의 경전에도 그 자구는 없다고 했다. 태자는 옛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에는 있는데 그곳이 중국의 형산(衡山)에 있는 절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신을 보내 그 경전을 가져오도록 했다. 형산에 이르러 3인의 노승이 기쁘게 맞이하여 함에서 경전을 꺼내 주었다. 이를 전달받은 태자는 자신이 쓰던 경전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몽전에 들어가 7일낮 7일밤을 입정에 들었다. 마침내 8일째 되던 날 책상 위에 한 권의 경전이 나타났다. 태자는 중국에서 가져온 경전은 내 제자가 가졌던 경전이며, 혼을 날려 가져온 지금의 이 경전이 바로 자신이 지녔던 경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글자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 속 형산은 천태종 제2조 남악대사 혜사(慧思)가 주석했던 곳으로 후대에 태자가 혜사의 환생이라고 보는 신앙에서 유래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태자의 총명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불법이 동아시아 문화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설화에 따르면, 혜자와 태자가 같은 날 열반했다고 한다. 사실 혜자는 615년 고국으로 돌아가서 태자와 같은 해에 열반했는데, 이는 불법의 스승인 혜자와 제자인 태자와의 사이가 얼마나 깊었던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백제 혜총(惠聰)의 전법, 관륵(觀勒)의 역서와 천문지리서 등의 전수 등은 물론 백제인들에 의해 최초로 완비된 당탑가람을 갖춘 아스카사(飛鳥寺)의 건립 등 이 시기에 많은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다.

태자 신앙은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쵸(最澄)에 의해 받들어지면서 그가 활동한 히에산(比叡山)의 전통이 되었다. 새로운 종파 불교가 융성해지던 시기인 중세 카마쿠라(鎌倉)시대에는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현재 일본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親鸞)은 29세에 쿄토(京都)의 육각당(六角堂)이라고 하는 절에서 백일수행 중 꿈속에 태자의 계시로 정토종의 조사인 호넨(法然)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비승비속의 조사로 정토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법의 토착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쇼토쿠 태자는 일본역사는 물론 불교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설화에도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경의소(三經義疎)>는 <법화경> <승만경> <유마경>에 대한 주석서로 그가 불교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태자의 비가 천수를 기원하며 수를 놓았다고 하는 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에는 세상은 허명이며 불법만이 진실하다고 하는 태자의 세간허가 유불시진(世間虛仮 唯佛是眞)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정쟁이 잦았던 당시의 세태에 시달리면서도 불법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했던 태자의 심정이 들어있다. 이를 통해 태자야말로 불법의 의미를 깨달은 일본 최초의 불교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 불교 문헌의 대총서를
읽기 쉬운 우리말로 만난다.

신라 1 인왕경소 원측 | 백진순 옮김 | 신국판 | 800쪽 | 35,000원
호국의 비법이 설해진 『인왕경』의 주석서이다. 원측 스님의 말년 작품으로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고려 1 일승법계도원통기 균여 | 최연식 옮김 | 신국판 | 214쪽 | 12,000원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스님의 『법계도』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이며, 균여의 저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균여 화엄사상의 초기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고려 2 원감국사집 충지 | 이상현 옮김 | 신국판 | 480쪽 | 25,000원
고려 말엽에 국사로 활약한 충지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선취적禪趣的인 시와 외세의 영향으로 곤궁에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식인의 고민을 보여 주는 시가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1 작법귀감 백파 긍선 | 김두재 옮김 | 신국판 | 336쪽 | 18,000원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의식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있어 불교의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2 정토보서 백암 성총 | 김종진 옮김 | 4×6판 | 224쪽 | 12,000원
극락의 찬란한 모습과 그곳에 이르는 방법 등 정토신앙에 대한 교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염불수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 3 백암정토찬 백암 성총 | 김종진 옮김 | 4×6판 | 154쪽 | 9,000원
극락과 염불을 노래한 정토의 노래이자, 백암 성총 자신의 인생 여정과 수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서정과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선 4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 김상현 옮김 | 4×6판 | 180쪽 | 10,000원
천불을 조성해 경주에서 배에 싣고 해남 대둔사로 가던 중 일본에 표류하여 겪은 일이 흥미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풍속과 일본인의 조선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언론이 주목한
10년간의 대장정, 그 첫 결실

한국불교전서의 한글본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완역과 같은 문화적 충격을 줄 것 – 문화일보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흔치 않은 책이다 – 경향신문

이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분량만 24만 장에 달한다. 이중 80%가 한글 초역이다 – 중앙일보

향후 10년간 한글 번역본이 200~300권에 이르게 될 대장정 – 조선일보

10년 뒤 총서 완간되면 불교인식 바뀔 것 – 서울신문

우리말 옷 입은 1700년 한국불교 진면목 – 연합뉴스

동국대학교 출판부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고 그 느낌을 알아차린다

강 사 : 전나미 (자비의전화 이사 · 불교상담대학 강사)
일 시 : 2010년 7월 24일
주 제 :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표현예술
장 소 : 평택 불법사
주 최 : 불교상담개발원

부처님은 어린 시절부터 참된 '나'의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골몰했다. 결국 진정한 '나'는 무명(無明)으로 업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나'임을 깨우치고, '제법무아(諸法無我)'로 중생들을 제도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일을 겪게 된다.

특히 문명의 발달과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가끔 나 자신에 대해 잊고 지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자기성찰은 꼭 필요한 수단인지도 모른다.

자비의 전화 전나미 이사는 7월 24~25일 평택 불법사에서 열린 '제11회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상담 워크숍'에서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표현예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나미 이사는 표현예술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댄스,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청중들과 함께 실습 위주로 강의했다.


전나미 자비의전화 이사

표현예술치료란 창의적 표현 및 창의적 공동체의 자연 치유능력을 경험하는 것

표현예술치료란

표현예술치료는 표현예술과 심리치료를 통합한 것입니다. 즉, 내담자의 갇혀있던 자아를 다양한 표현을 통해 밖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표현예술치료를 공식화한 Appalachian 표현예술치료학파(2003)는 표현예술치료에 대해 "표현예술치료는 상호 복합양식의 표현치료, 창의적 예술치료, 그리고 다문화적 예술치료입니다. 인간의 성장발달 그리고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지, 스토리텔링, 댄스, 음악, 시, 문학, 동작, 꿈 작업, 시각예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실천 위주의 치료방법이다. 표현예술치료는 인간의 개인 경험과 집단적인 경험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함으로서, 내적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표현예술치료협회에서는 "개인의 신체 · 정서 · 인지를 통합하기 위해 복합 모형의 예술 과정들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예술과 심리치료를 통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탈리 로저스(Natalie Rogers)는 "표현예술치료를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술 장르, 즉 동작, 드로잉, 회화, 조소, 음악, 글쓰기, 소리, 즉흥극 등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표현예술치료는 여러 예술매체를 치유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심리치료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인간의 정서 상태는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으며, 비선형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상징적이고 비언어적인 방식을 창조적 과정을 통해 자기탐구와 의사소통의 대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예술치료에는 인간중심주의 표현예술치료와 동작중심의 게슈탈트 표현예술치료가 있습니다.

동작중심 게슈탈트 표현예술치료

'알아차림'은 게슈탈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펄스(Frederick Perls, 1893~1970)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바로 치료적일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게슈탈트 치료자들도 알아차림이 게슈탈트 치료의 유일한 목표이고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슈탈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깨어있으면서 매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의 교류에서 장애를 겪게 되면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게슈탈트치료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첫째,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은 신체감각, 욕구, 감정, 환경, 상황,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둘째는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접촉경계혼란행동, 사고패턴, 행동패턴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접목한 예술치료에서는 그 적용이 훨씬 직접적이면서도 알아차리기 쉽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동작중심의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인간의 표현행동이 그 개인의 자각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다리아 할프린(D. Halprin)은 펄스의 이론에 더해 우리의 몸과 동작에 대한 자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알아차림과 반응의 세 가지 수준(신체 · 정서 · 인지수준)'을 지도했습니다. 표현예술을 통해 내담자의 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의 삶의 경험 등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동작표현예술치료에서 어떻게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반응들을 알아보는지 살펴보는지 알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 나고 있는가? 둘째, 정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셋째, 인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넷째,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이런 알아차림은 내담자에게 동작, 이미지, 감정들 간의 대화를 넓히고 확장시키게 돕습니다. 이때 내담자는 자기관찰 능력이 발전되고, 자신만의 창조성이 일깨워지며, 자신의 선택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표현예술을 통한 세 가지 수준의 알아차림은 참여자의 알아차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나 목격자들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리아 할프린은 발견, 직면, 해소, 변화, 성장 등 5단계로 나눠 내담자가 현재 갖는 문제를 안정시키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합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7월 24일 평택 불법사에서 열린 제11회 산사에서 마나는 불교상담 워크숍에서 누워있는 사람(내담자)을 대상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의 악기를 통해 치료해 주고 있다. 일명 '악기 샤워'.

◆ 자리이타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신체 부위에다 악기를 갖다 대고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생각으로 연주를 하면 됩니다."

이름 모를 갖가지 악기 소리가 불법사 법당 안을 가득 메운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주최한 '제11회 산사 워크샵'에서는 상담사들이 직접 내담자가 돼 자리이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전나미 이사는 게슈탈트 표현예술치료에 입각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상담원은 내담자와 상담에 앞서 라포형성을 해야한다. 라포형성이란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 전 상담원과 충분히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서로 눈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이들도, 점점 음악에 취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다.

전나미 이사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나누 듯, 우리는 춤을 추면서 어깨를 부비고, 엉덩이를 맞대면서 인사를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공놀이를 진행한다.

공놀이는 춤을 추고, 인사를 하면서 나눴던 유대감을 더욱 극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땀을 빼고 난 참가자들은 다시 '뿌리내리기 댄스'로 고요한 명상시간을 갖는다.

"'내가 나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 다리가 땅 속의 뿌리가 돼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음악에 맞춰 내가 나무라는 생각으로 팔과 몸을 흔들면 됩니다."

이렇게 도입부의 시간이 끝나면 본격인 자리이타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자리이타 프로그램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과, 타인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에는 그룹을 정해 내담자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눕는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작은 악기, 스카프 등을 이용해 내담자의 몸을 치료해 준다. 일명 '악기 샤워' 시간이다. 악기 샤워는 무릎, 머리, 팔, 몸 등 아프다고 생각하는 곳에 작은 악기들을 흔들어대며 각자의 소리를 내면 된다. 전 이사는 "타악기는 특별한 연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다"며 "내가 정성껏 치료해 주겠다는 그 감정을 악기에 실어 연주하면 된다. 그러면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 소리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마치 내 자신이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며 "우리 조원들 모두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 김경례 사무국장은 "눈을 감고 처음 소리를 들을 때는 이성과 감성으로 나눠 소리를 분별했다. 낯선 소리들은 마치 내가 밀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며 "천으로 나를 덮고 계속 악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편안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나미 이사는 "게슈탈트 표현예술은 마치 불교의 심신법처럼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요절복통 여래네 집

#21.아빠의 술 이야기



스튜디오 돌

우리 아빠는 자타가 공인하는 술꾼이랍니다.



군대시절 야외 적응 훈련 나가서는 소대 회식에 쓸 소주 한 박스를 하사 동기 한 사람과 다 마셔버렸다니 알만하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젊은 날 술에 취해 리어카에 실려 집에 오신 적도 있다고 하니 아마 집안 내력인가 봐요.



암튼 술고래 집안의 우리 아빠가 술에 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과 에피소드를 아빠로부터 직접 들어보기로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필름이 끊어지는 유형도 가지가지예요, 보통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필름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지요,



문제는 취했다가 자꾸자꾸 중간에 깨는 타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앞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마셨는지 또 상대방은 얼마나 마셨는지를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당황스럽더라구요,



술에 취해 깜빡했다가 정신이 돌아와 상황을 돌아보니 난감한 거예요,

① 우선 장소가 바뀌어 있다,



② 술 마시는 대상이 바뀌어 있다,



③ 여기까지는 약과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필름이 끊어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도 다행인 건 같이 있는 상대방들도 마찬가지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날 상황을 물었을 때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서너명이 모여 밤새 술 마시며 즐겁게 놀고 나서 아침에 같이 해장국을 먹을 때 이런 상황까지 연상이 돼요,



이주일의 화두

백명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백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뒤에 가는 괴로움이 없는 에진 자에게 따른다.
우다나 자에게 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휴식 더하기 지혜, 책으로 휴가 떠나볼까

불출협이 권하는 올 여름 꼭 읽어야 하는 불서 22선(무순)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To Do 리스트'에 '책 읽기'를 적는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일단 계획은 세웠지만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주중에는 일하랴, 주말에는 밀린 약속 쫓아다니느라 바쁘다. 통근 시간에 읽어보려고 책을 들고 다니기는 하나 버스 · 지하철에 사람이 만원인지라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집에 와서라도 읽어보려고 취침에 들기 전 책을 펼친다. 5~10분도 안돼서 한 두 장 읽다가 바로 곯아떨어진다. 핑계라면 핑계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나 할까?

각자의 계획을 만회(?)할 독서의 계절이 왔다. 여름방학 · 휴가철 말이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이하 불출협)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교출판문화협회 추천-올여름에 읽는 불서 22選'을 선정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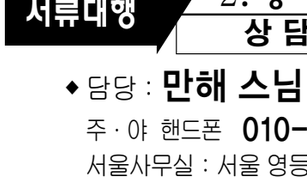
불출협은 '올여름에 읽는 불서' 선정을 위해 7월 6~15일 9일 동안 18개 회원사로부터 불교계 출판사들이 최근 2년간 출간한 불서 중 학술서를 제외한 성인용 교양불서를 대상으로, 자사도서 5권, 타사도서 5권씩을 추천 받아 15일 이사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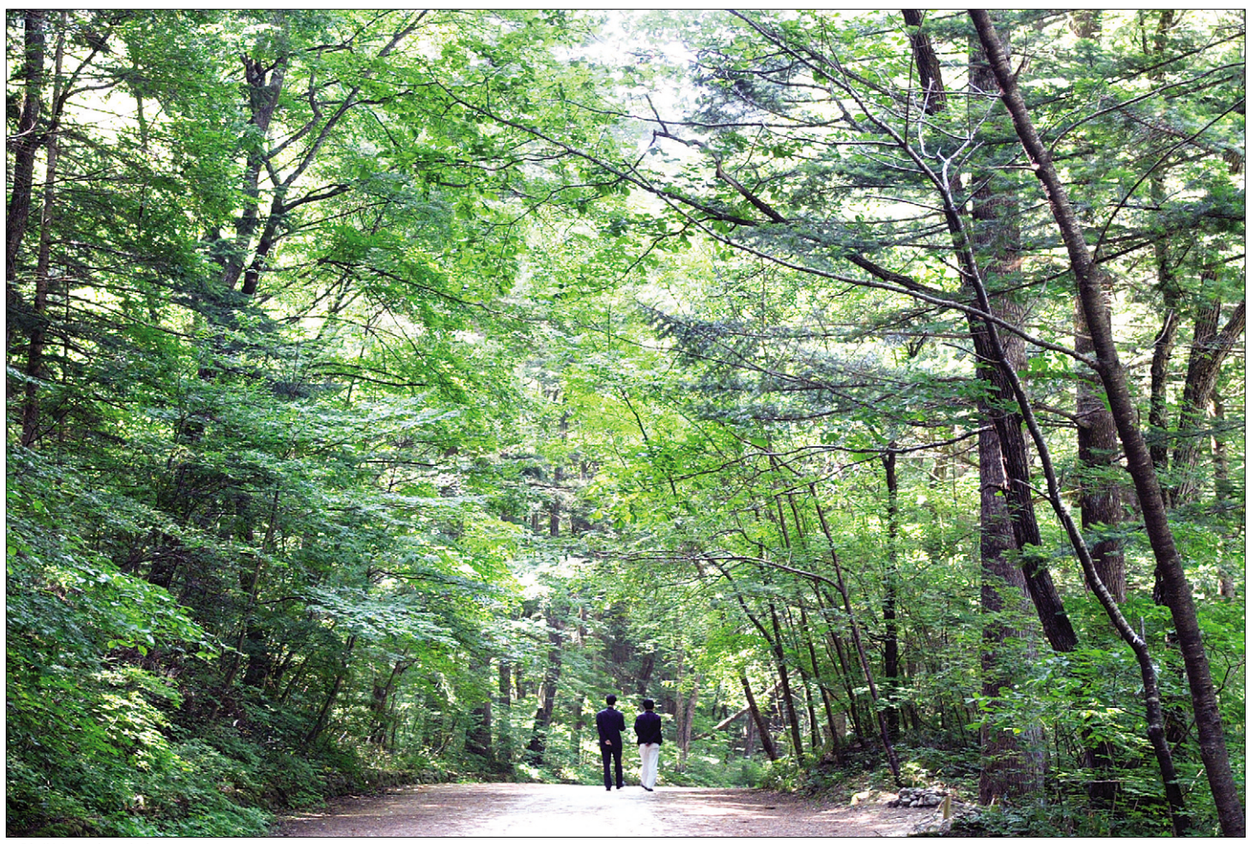
불출협은 "여름에 많은 스님들은 전국의 사찰에서 하안거 정진을 하고 있지만, 스님들과 같은 방법의 수행이 어려운 재가자에게 휴가철을 맞아 '불서읽기'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선정 작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출협은 또 "추천된 '올여름에 읽는 불서'들은 재가자들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지혜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자신과 지켜오지 못한 약속을 불서읽기로 다지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해보자.

정리=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자료사진>

젊은 날의 깨달음 | 혜민 스님 | 클리어마인드

하버드대 재학시절 출가한 스님이 지난 10년 동안 교계 매체에 발표한 글들과 최근에 쓴 새로운 글들을 모은 것이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스님은 일류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학력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 천진, 현현 스님 | 불광출판사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수행 이야기>를 읽고 지리산 홍서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풀어놓은 가지각색의 사연에 따라 설해준 법문집. 자살, 이별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행복하지 않은 원인, 고통받는 원인을 밝혀준다. 두 저자의 은사 정봉무무 스님이 이들의 괴로운 마음을 일일이 보듬어주면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스님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지리산 풍광이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커피와 달마 | 성재헌 | 한걸음더

좌선을 '산책길'에 비유하며 쉽고 즐거운 좌선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15분' 동안 바르게 앉아 좌선을 하는 것이 삶에 어떤 도움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흥미진진하게 전달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적 깨달음을 얻게 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불교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 일아 스님 | 민족사

수녀가 되려다 불교에 이끌려 비구니가 된 저자가 자신이 썼던 칼럼과 자신의 삶, 수행, 학문 이야기들을 모았다. 붓다의 초기 경전인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과 같은 주옥같은 지혜의 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바른길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글,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에 실린 저자의 칼럼 등이 실려 있다. 마지막 장은 출가 수도 생활을 기점으로 한 저자의 삶을 담은 것으로 권 마리마테오 수련장님, 법정 스님, 인홍 스님 등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훌륭한 스승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의 생애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빨리본, 산스크리트본, 한문본 경전 등을 근본 자료로 하고 인도고대사를 참조해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입문서. 이 책은 개인적인 저술에서 벗어나 불타론 관련 전공 학자들이 공동으로 엮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글자 한 자 한 자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았다.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 전법의 가르침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미국불교사 | 릭 필즈 저,한창호 번역 | 운주사

1992년까지의 미국불교사를 생생하고 세밀하게 엮어냈다. 불교가 유럽을 거쳐 미국에 뿌리내리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한 충돌, 교섭, 융합에 대해서도 다뤘다. 미국인 특유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엿 볼 수 있다. 또한 미국불교에서 주류적으로 자리잡은 일본불교와 티베트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 등도 미국불교에 녹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불교의 핵심에는 재가불교와 생활불교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 | 홍사성 | 불교시대사

아함부 경전 가운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주옥같은 알맹이들을 간추렸다.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인과응보 △행복과 평화 △자비와 공덕 △ 올바른 생활 △노력과 정진 △나눔과 선행 △포교와 설법 △반성과 참회 △겸손과 양보 그리고 인욕 △수행의 길 △마음 닦기 △청정한 삶 △사색과 성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한 권으로 묶었다.

선객 | 법광 스님 | 한걸음더

1998년 가을, 통도사에서 3주간에 걸쳐 수계 받는 스님들을 지도하던 때의 일화, 출가하기 3일전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된 일화 등 스님의 일상과 수행 정진에 얽힌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사진작가 못지않은 혜관 스님의 선운사 주변 풍경사진을 함께 수록해 청량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더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지나온 삶 반추하며 마음도 쉬도록…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 법상 스님 | 불광출판사

국내 최초로 스님이 쓴 히말라야 쿰부 트레킹 입문서. 수행과 명상, 자연과 여행을 주제로 쓴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켜 온 저자의 명상순례기를 담고 있다. 편의시설도 거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야생의 산속을, 그것도 해발 3,000~5,500m의 높은 설산의 기슭이나 봉우리까지 직접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걸어 올라가며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삶에 대한 지혜로운 사유와 사색을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섬세하게 담아냈다.

우승택의 생테크 날줄 원각경 | 우승택 | 불광출판사

MBC '경제야 놀자', 불교 TV '우승택의 투자클리닉'으로 반향을 일으킨 삼성증권 PB연구소 우승택 소장이 원각경에서 건져 올린 生테크 이야기를 담았다. 다양한 예화와 실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해 원각경의 참뜻을 설명해 주고, 경전 중간 중간 소제목을 달아 원각경의 말씀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불교미술의 해학 | 권중서 | 불광출판사

260장의 도판을 자신의 발과 손 그리고 눈을 이용해 확보함으로써 책의 생생함을 더했다. 절과 탱화 등 불교 예술작품에 담긴 불교적 가치를 경전과 함께 제시해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불자들에게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불교미술 속에 담긴 해학과 풍자를 함께 다룸으로써 독서의 흥미를 부여한다.

붓다를 만난 사람들 | 성재헌 | 아름다운인연

사람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하는 불교 전문 작가가 2,500여 년간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아온 '붓다'의 삶을 친밀하게 그려냈다. 특히 앙굴리말라, 시리굿따, 쫄라빤타까, 바라문, 니그로다 등 붓다를 만나 인생 최악의 고난에서 벗어나 연꽃 같은 삶을 살게 된 15인의 제자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되살려내 이해하기 쉽게 들려준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 청전 스님 | 휴

신학교에서 송광사로, 송광사에서 다시 인도 다람살라로 수행을 위해 떠돌아다닌 해동 비구 청전 스님의 감동적인 사람 이야기이다. 힘없고 낮은 이웃들과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저자는 다람살라 거리에서 마주치는 거지들, 거리의 강아지까지 살뜰히 보듬는다. 풋중 시절 행각하다 만난 어르신들, 군대시절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며 인간을 사랑과 예의로 대한다. 30년 만행길에 쌓아온 스님의 인연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곁에 있는 이웃과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싹튼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야기 숲을 거닐다 | 보경 스님 | 민족사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인 보경 스님이 전하는 삶의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의 지혜 이야기.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네 가지 주제로 각 문화권의 우화, 신화, 민담, 종교 그리고 다양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특히 불교의 인문학적 해석에 평생을 바쳐온 스님의 해박한 지식과 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만나 삶의 가르침을 전한다.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치료이야기 | 전현수 | 불광출판사

불교 수행과 공부를 통해 경험하고 얻어낸 보편적 지혜를 정신치료에 응용해온 저자가, 불교 중에서도 위빠사나에 대해 수행하고 공부하는 중에 이해하고 얻어낸 가르침을 정신의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위빠사나의 가르침이 반영된 정신치료를 통해 스트레스, 피해망상, 정신분열 등 마음의 병을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분주한 세상 속에 휘둘리느라 불안해진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

초기불교 VS 선불교 | 방경일 | 운주사

불교의 여러 미스터리를 낱낱이 파헤친 책. '붓다는 가공의 인물인가?', '니까야에 근거한 교리들은 오류가 없는가?', '중국인은 왜 초기불교를 버렸나?', '선종은 불교와는 다른 종교인가?' 등을 치밀한 논리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풀어냈다.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인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을 볼 수 있다.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 스님 | 정토출판사

제목에서 보듯, 붓다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뇌에 슬퍼했고 고민했던 사람이었다. '왜 세상은 고통일까'라는 문제에 천착하며 붓다는 깨달음에 도달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라는 삼법인과 고집멸도라는 사성제, 12연기법은 붓다가 인간 삶에 대해 내린 해석이자 치유법이었다. 붓다의 위대함은 그가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르침을 일반 대중에게 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붓다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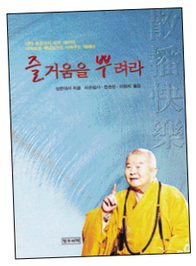
날마다 웃는 집 | 법륜 스님 | 김영사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괴로움 없는 삶을 추구하는 실천적 종교인 법륜스님의 행복론. 스님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며, 행복의 첫걸음이 되는 가족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인생의 지혜를 일러준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깨우쳐주고, 삶의 기본 토대인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해지는 비법도 소개한다.



미산 스님의 초기경전 강의 | 미산 스님 | 명진출판사

빨리어 5부와 니까야와 한역 4부 아함경을 포함한 초기경전을 위주로 불교의 핵심에 대해 논하고 있다. 12연기, 삼법인,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윤회 등 불교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다뤄진다. 특히 저자는 불교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팔정도를 강조하며, 아는 불교가 아닌 행하는 불교를 표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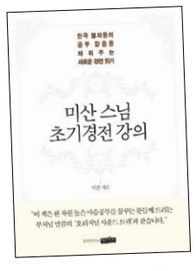
부처님 생애(만화 불교 이야기) | 김정빈 | 솔바람

부처님의 생애를 만화의 형식으로 담은 책. 부처님의 삶이 만화라는 장르를 통해 제시되기에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있지만, 단순히 부처님의 생애를 말하는 위인만화는 아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불교란 무엇일까?'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어려운 질문의 대답들을 찾아내고 있다.



즐거움을 뿌려라 | 성운 대사 | 정우서적

인간불교라는 이상 아래 세계 인류의 평화와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세계 200여 개 사찰에서 불광(佛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만의 '성운대사'는 이 책에서 불교적 삶의 자세를 전한다. 저자는 반은 깨어 있고 반은 미혹된 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깨침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에 몇 줄의 글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현실을 짚어내 마음 쓰는 법을 알게 하고, 도리를 깨닫게 한다.



오세암의 달밤 | 정관 스님 | 부다가야

불자들의 순례지인 오세암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출가자로서 평소 생활하고 수행하며 느꼈던 이야기를 잔잔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넓고 깊은 사색이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때로는 구도정신을 일깨우고, 때로는 삶을 성찰하게 한다. 아울러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사소한 일상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하는 계기를 선사한다.



기도만이 참자유 얻게 해

법륜 스님의 '기도' 법문 모아



기도, 내려놓기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펴냄 | 8500원

<기도, 내려놓기>는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즉문즉설 법회에서 한 기도에 관한 법문을 모은 책이다. 그동안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 법회에서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 고민하면 '기도하라'고 답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흔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은 책에서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는 욕심을 붙이면 안된다. 욕심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 밝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스님은 △모두 성취되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 자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법 등을 안내한다.

"모든 괴로움은 나의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눈을 안으로 돌이키는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스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 참다운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륜 스님은 종교나 교파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참된 기도로 자신을 비우는데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책 출간을 기념해 8월 15~22일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는 저자 직강 즉문즉설 강연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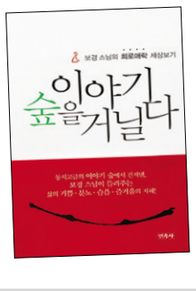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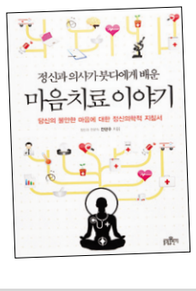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3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원철	뜰
6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7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풍경소리
8	절집 길라잡이	김영숙	운주사
9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10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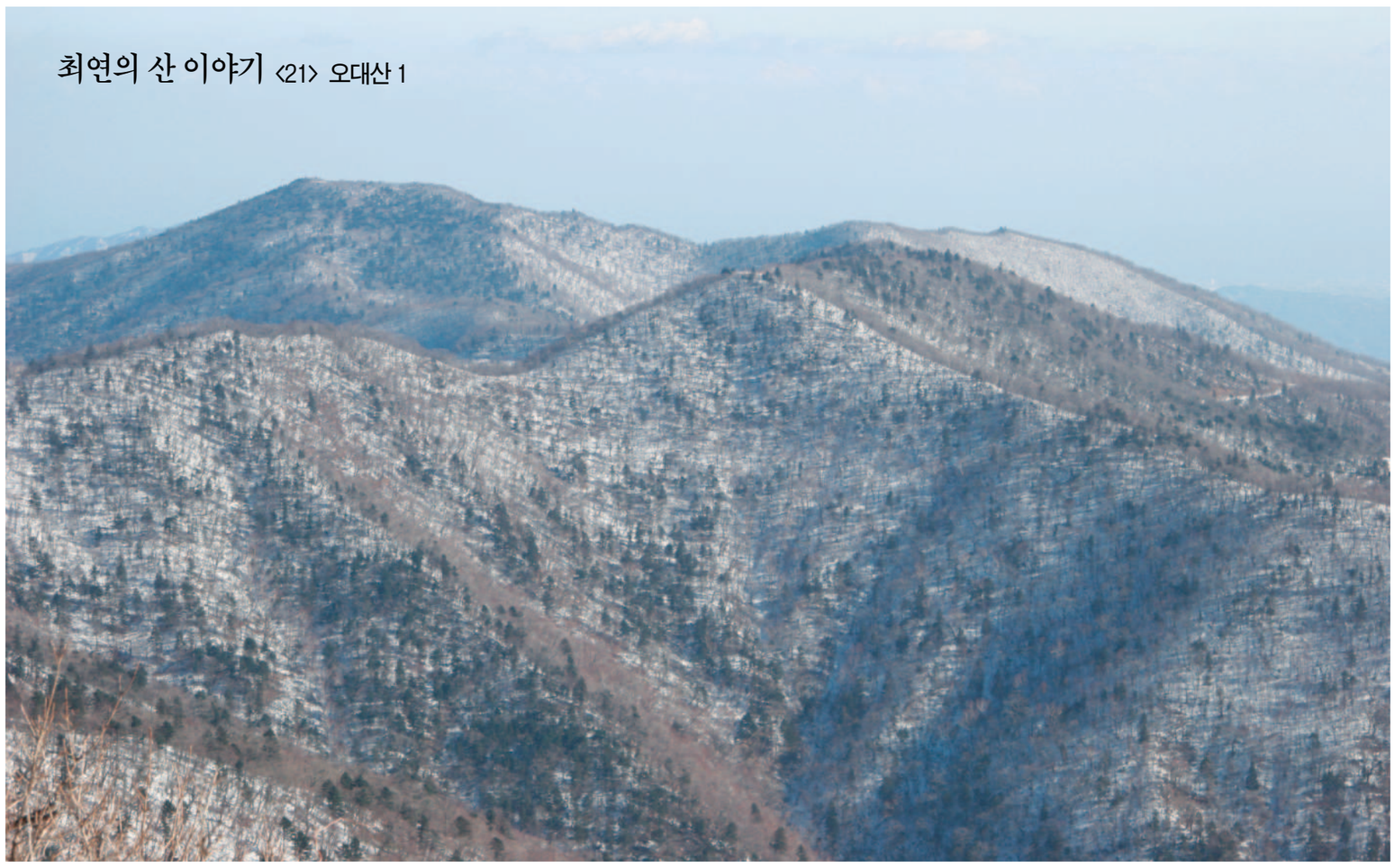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양다원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최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 · 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전강대선사님 인 가 제 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 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법음입니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1인당 6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발우 대여,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번지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최연의 산 이야기 <21> 오대산 1



비로봉에서 바라본 상왕봉.

다섯 봉우리에 부처님 세상이 펼쳐졌구나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남향하던 백두대간이 태백산(太白山)에서 서남진(西南進)하면서 산줄기의 높이가 현격히 낮아지는데, 그 태백산에 이르기 전에 백두대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산이 오대산(五臺山)이다. 백두대간에서 벗어난 산줄기는 서향하면서 오대산, 계방산, 흥정산, 태기산 등 1200m가 넘는 산군을 일구어 놓았다.

오대산은 설악산(雪嶽山)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높이 1563m에 산 둘레가 강원도 명주군, 평창군, 홍천군에 걸쳐 사방으로 50여리에 이르는 웅장한 산인데도 수려한 기암괴석이나 유명한 폭포가 하나도 없다. 설악산이 골산(骨山)이라서 한껏 치장한 여인과 같다면, 오대산은 육산(肉山)으로 화장하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과 같다. 그래서 오대산 봉우리들은 설악산에 비해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율사가 중국 명주의 오대산 아래 태화지(太和池) 7일 동안 기도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한 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기도를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태백산 정암사로 떠났다.

자장율사가 다녀간 100여년 후에 정신왕(淨神王)의 두 아들 보천과 효명이 이곳에 들어와, 보천은 지금의 상원사 아래에 보천암을 짓고, 효명은 건너편에 초막을 짓고 은둔하며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오대산 다섯 봉우리를 차례로 참례하였다. 신라시대에 '정신'이라는 왕은 없었는데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정신왕이 신문왕일 것이라고 했다.

동쪽의 만월산(滿月山)에 오르니 1만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이, 남쪽의 기린산(麒麟山)에서는 1만의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서쪽 장령산(長嶺山)에서는 무량수불(無量壽佛)과 1만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북쪽 상왕산(象王山)에서는 석가여래(釋迦如來)와 5백 아라한(阿羅漢)이, 중앙의 풍노산(風盧山)에서는 비로자나불(毘盧奢那佛)과 1만의 문수보살(文殊菩薩)이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 신령스러운 다섯 봉우리를 각기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라고 이르는데 '오대(五臺)'라는 이름이 여기서 연유했다. 다섯 봉우리가 지금의 동대산, 두로봉, 호령봉, 상왕봉, 비로봉을 말한다.

정신왕이 세상을 떠나자 보천태자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효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오대산에 홀로남아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열반에 들게 된다. 보천은 입적하기 전에 후세 사람들이 오대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오대산은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중요한 맥이다.
동대, 서대, 남대, 중대, 북대에 암자를 짓고 거기에 머무시는 불보살들을 잘 모셔라.
각 대마다 다섯 사람씩 살게 하여 정성을 다해 경을 외고 기도를 하며 수행에 힘쓰도록 하라. 그러면 왕이 장수하고 백성이 태평하며 신하들이 화목하리라.

이때부터 오대산은 많은 수행자들과 왕족을 비롯한 신도들이 줄지어 참배하는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불교적 이상향은 불국토(佛國土) 사상으로 표현되는데 불국토 그것은 부처님의 나라이다. 아미타불은 서방에 극락정토(極樂淨土), 비로자나불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약사여래는 동방에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 미륵불은 용화세계(龍華世界)라는 불국토로 사바세계를 장엄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穢土)을 불국토(淨土)로 만들어 보자고 염원하였는데 그 한 예가 오대산 신앙이다. 오대산 신앙을 우리나라에 전한 인물은 중국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은 자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오대산을 신앙의 근원으로 만든 것은 보천과 효명이고 특히 끝까지 남아 수행한 보천의 힘입은 바가 크다.

보천의 유훈을 받들어 후학들은 동대 관음암, 서대 수정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중대 사자암을 지어 청색의 관음보살, 백색의 무량수불, 적색의 지장보살, 흑색의 석가모니불, 황색의 비로자나불을 각각 모시고 원통사(圓通社), 수정사(水精社), 금강사(金剛社), 백련사(白蓮社), 법륜사(法輪社)의 신행결사(信行結社)를 만들어 낮에는 경(經)을 독송하고 밤에는 예참(禮懺)을 행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각 방위(方位)에 따라 색깔이 배정된 것인데, 이때 이미 오행사상(五行思想)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교사상과 결합되는 한 예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새소리 들으며 잠에 드는 아침

울부짖는다고 해야 할까? 피를 토한다고 해야 할까? 두 가지를 합친 소리쯤이나 될까?
우웨엑– 우워억– 우어엉– 우어억–
어둠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며 윗집 우사에서 소가 운다.

우사 안의 소들은 배가 고프거나 발정이 났거나 새끼와 생이별을 할 때 운다. 배가 고플 때의 소리는 붉다. 발정이 났을 때의 소리는 더 붉고, 오늘처럼 새끼와 생이별을 했을 때는 더더욱 붉다. 깊은 밤, 새끼를 찾는 어미 소의 울음은 내려앉은 어둠을 뒤흔들며 산과 산 사이의 세상을 검붉은 피로 출렁이게 한다. 윗집으로 뛰어올라가 주인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요동친다.

"소음은 규제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축사 신축은 400㎡까진 신고만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군청 직원의 얘기로는 산속이라 해도 농지에 짓는 축사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석해서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그나마 있던 농지위원들의 동의 절차까지 없앴다고 한다. 축사를 지을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 거기다 기술센터에서 축사 건립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하니 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낸 세금이 나를 괴롭히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니….

나뭇가지 잎 뒤에 숨은
초승달이 조는 틈을 타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빛을 흔들며
새들이 운다

"축사를 지을 땐 주민 동의서 첨부를 강제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웃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었다. 땅값 하락 등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선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 등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밖의 방법으론 파리며 악취며 식수오염에 관한 우려 사항 등을 가지고 끝없이 민원을 넣는 수밖에는 없었다.

어찌해야 할까? 윗집과의 싸움에 매달리다보면 나의 생활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글쓰기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윗집 사람(그와 함께 자라난, 이 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합친)과의 긴장 상태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산속에 축사가 들어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인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듯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자질이 모자람을 인정하고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걸까? 이때를 기회삼아 이곳을 떠날까? 축사가 빤히 보이는 집과 땅을 누가 살 것인가? 판다고 해도 반 값 정도나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인데, 그 돈으로 어딜 가서 살 만한 터를 구할 것인가? 윗집 땅과의 경계선 아래로 내 집까지 펼쳐진 밭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든다면 달리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훠이 허이 훠이 허

이런 저런 생각 끝에 문득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니 어슴프레, 새벽이 눈을 뜬다. 나뭇가지 잎 뒤에 숨은 초승달이 조는 틈을 타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빛을 흔들며 새들이 운다.

훠이 허 훠이 허 씨씨 씨버럴 씨버럴 씨이씨 히오리 허리 히어 히어리 히어

산과 산 사이, 산과 하늘 사이를 꽉 채우며 '둥둥' 소리의 세상이 빛으로 떠오른다.

마루 밑에서 잠에 들은 개도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도 아들도 일어나지 않았다. 숲은 어두운데 하늘은 밝다.

우웨에 우워어엉 우워어 워어어엉–. 그만 멈췄는가 싶었던 소 울음소리가 다시 이어진다.

다행일까? 새소리는 붉게 물들지 않았다. 새소리가 퍼져나가는 만큼 붉은 빛이 점점 묽어졌다. 조금만 더 밝아진다면 새소리가 소 울음소리를 지울 기세다. 서둘러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생각한다. 집 위에 숲을 만들며 좀 더 살아보자. 지금까진 괜찮다.

■ 유승도 (시인)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용도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돌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용두 작명 역학 연구소
수강생모집.
제기역3번출구
최단기간에 성심껏지도
02)3295-3456
011-9020-8215
달마 김대영

역학(명리) 수강생 모집
● 기초부터 총정리 반
● 총정리 반
(영천 안완산 실상사)
010-7270-3425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님 자연의
치유법으로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45세 이하 남.녀 다섯분까지
금화산 관음사
031)533-0741
www.saam.asia

영을 통달하고 싶으신 분 선착순 3명
● 건강 불치병 ,
● 남여 이성문제
● 자녀진도 상담요
010-5446-8846 영통암

염불 역학
1달 속성 완성
(기초에서 통변까지)
승려가 개인지도
숙식가능
011-716-3811

매월
정기법회를
봐드립니다
▷비구니 스님
016-562-6677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가족같은
공양주보살
모심니다
▷팔공산 동명 구화사
010-9421-9364

사무직원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대전
010-5792-3000

공양주 구함
외국인 환영
▷충북 괴산군 천년고찰
010-6414-5600
043)832-61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양양군 동해사
010-4573-8316
033)672-2900

공양주 모십니다
남녀 행자
모십니다
▷경기 안성에 산세수려한 도량
010-8954-8033

아름다운 마무리 노후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 참선하실 분,
역학 배우실 분
• 남녀 행자 모십니다
010-8992-67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횡성
033)342-3372
010-3738-03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제반 의식에
능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승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월 80만원 65세 미만)
▷경남 창원
010-5040-7584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 잠실)
함께 불사하실 처사,
보살님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으로 모시겠습니다.
010-6889-5040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건축 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 체 의 학 비 법 전 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탈퇴를 공고합니다

● 사찰명 : 용주사
● 법 명 : 대명 (권태혁)
● 주 소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565-2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단체 탈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의사
● 법 명 : 지혜(강부건)
●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452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준수할 수 없으므로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사)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경북 대구
● 법당 : 24평
● 요사 : 82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 24평
● 부지 : 110평
● 가액 : 4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서울명산에 소재한 기도 영험 도량입니다
● 천하 명당 사찰임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 가액: 12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가액: 16억(절충가)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터 안내

● 위치: 부산시 대연 6동
● 법당 20평, 큰방 1개, 다락 2개
● 포교를 위한 법당으로 최상의 위치
● 스님 , 법사, 보살 환영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551-1482

사찰터안내

● 위치: 경덕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 산세와 도로 대중교통 전기 진입로
● 계곡접한 남향 535평
● 가액: 평당 5만원. 주인직
011-538-2211
054)682-494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 법당 29평, 요사 30평
● 공양실, 창고(콘테이너)
● 대지 264평(기타 80평)
● 가액: 5억 (부동산사절)
● 직거래하실분만연락바람
● 전세도 가능함
010-8710-789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4층 건물 중 2층
● 법당, 요사채 포함 72평
● 주차장 완비
● 도심속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2천만원 월 70만원
● 인연있는 분 전화바람
011-537-0138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3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쑥뜸방(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온천 역세권, 아파트 밀집지역,각 노선버스 정류장, 홈플러스, 재래시장 입구
● 법당 겸 쑥뜸방, 시설 깔끔
● 3층, 33평
● 가액: 합 4500만원
● 기술 책임 전수, 비구니 보살님 적합
●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17-560-1035

시내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 대지: 50평
● 1층 : 방4,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 방3, 화장실, 주방
● 3층 : 법당, 지하실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도심속 사찰터 안내

● 31만명 원주시 중심, 삼면이 5m인 높은 성, 아주 큰나무
● 20여 구루. 주변 아파트단지 예정인, 조건 좋고 예쁜 터.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동
● 대지 = 645평
● 건1=2층(50+50평), 지12평
● 건2=허가50평+무허50평
● 가격 = 평당 300만 +α
011-9867-887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중앙동
● 법당과 안쪽 방1칸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이전불사관계로 급 안내
055)262-3679
010-4877-1679

사 찰 안 내

● 위치: 송파, 천호 20분거리
● 부지 133평
● 건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외 30평 ● 산신굴법당
● 주변여건 : 4차선 대로선 앞
● 뒤는 야산, 경관 예쁘고 마당 500평 이상 사용중
● 가액: 12억
010-2862-51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실大, 방3 (화장실2, 남향 뒷야산)
●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 8천만원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조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즉시 법회
011-329-660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공덕 1동 531-1번지
● 2층, 3층 각 70평, 합 140평
● 2층 공양실, 휴게실, 찜질방
● 3층 법당, 종무실, 스님방, 부전방, 객실
● 삼존동불, 소불168불
● 2층, 3층 단청 내부시설 완벽,
● 주차 편리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878-3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내, 위치 최상
● 큰법당, 불단 시설, 방 2, 큰거실 ● 평수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내방 절충
010-3603-3836
010-5038-45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
● 법당 1, 방2, 산신각, 공양실 28평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 모든 시설 완벽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35만원
010-4934-552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당리동
● 3층건물 중 3층. 40평
●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방1
●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010-4784-550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왜관 근교
● 평수: 약 520평
● 메뚜기 노는 잔디 마당
● 법당 20평, 목조단청
●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화장실 내부2, 외부 1동
● 가액: 3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포함)
● 대형 주차장 있음(가액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2억 2천 5백만원(조정됨)
010-451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
● 군유림 500평, 하천부지 500평
● 밭 1천평
●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1
● 가액: 평당 15만원
010-5317-7736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비면까지 5분거리
● 평수 : 220평
● 산중위치, 경치 좋음
● 가액: 2,500만원
010-9071-74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 김천에서 10분, 대구에서 30분
● 대지 1만평
● 관리지역, 토목공사 완료,
● 무엇이든 건축가능,산세수려
● 요사채 신축 원룸식 2동(각60평)
● 가액: 15억 중 6억은 대출가능
010-9367-598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3동
● 아파트 상가 3층 중 3층
● 주차장완비
● 평수 17평. 전체 리모델링
● 휴식공부 요양하실 스님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018-676-9900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수리
● 대지 224평
● 법당 (약50평), 산신각 (약 20평), 종각, 석탑
● 사택 2동 (방5개), 해우소, 약수물有 뒤에 산세수려하고 법당앞 연못有
● 백일홍 10그루 (14M)이상
● 가액: 4억 (절충가능)
043)852-0533
010-8504-0308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시 수정동
● 요사채 방 2
● 기도방 1, 관음전
● 여수 오동도 옆 바다가 한눈에
● 가액: 2천 5백만원
061)662-5580
011-676-53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인동
● 평수 45평 ● 방4
● 3층건물 중 3층 전체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700만원 합 1,200만원
011-540-3313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
● 한옥기와 1동 外 토담집 1동
● 대지 外 텃밭 450평
● 교통 편리하며 조용하고 수행하기 좋음.
● 가액: 7500만원 . 도인 은신처
010-5039-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면,시내 15분거리
● 뒤 산자락 물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 교통 최고 마을 인접 ● 총대지 650평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화장실2, 부속건물 2동
● 각종 유실수 조경완벽
● 가액: 3억 2천 5백만원
010-4802-383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 요사채 2동중 황토방 1개
●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9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태안군 태안읍사무실 부근
● 단독주택 조용함(방4, 거실, 욕실)
● 전세 2천으로 시설비 없음
● 스님 영구 해외 이주 관계로 고가구 및 불교 공예품을 문화원 및 민속박물관 하시는 스님께 저가로 인수원함 (팔만대장경외 200권 보시)
010-4285-59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김천혁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반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양천구 목4동 곰달래길
● 목동역 3번 출구,목동사거리 인접
● 3층 건물중 3층, 옥상(창고) 전체사용
● 방2(침방,친견방),법당,공양간,해우소
● 살림가능한 최신인테리어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 비구,비구니스님 포교수행에 최적
010-7283-9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1,5호선, 도보 5분거리
● 평수 45평, 2층 ● 법당 및 각종 시설 완벽
● (삼존불, 지장, 산신, 각단탱화)
● 보증금 1천 5백만원월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2)848-1774
02)8345-3360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29 걸음걸이 1

걸음걸이로 아름다운 몸 갖는다

아름다운 몸을 걸음걸이 하나로 가질 수 있다면 다소 억지일 주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보행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신체활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보행자세가 반복되면 인체의 특정부위가 약해지고 밸런스가 무너져 신체가 불균형해 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부위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외부 충격을 받았을 경우 갑작스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보행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근육을 강화시키고 탄력적인 몸매로 만듭니다.

필자는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보면 항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고치면 바르고 예쁜 체형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걸음은 정말 다양합니다. 뒤뚱 걸음, 팔자걸음, 안짱걸음,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모양의 총총걸음, 느릿느릿 뒷짐을 지면서 걷는 걸음걸이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발뒤꿈치부터 닿도록 걷는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선천적인 원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생활습관으로 체형 구조가 불균형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걸음걸이가 저마다 다를까요? 우리 인체의 보행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발뒤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땅에 부딪히면서 보행이 시작됩니다. 발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신체의 체중은 땅에 닿는 발바닥의 바깥쪽 방향으로 실리게 됩니다. 보행 시 체중이 실리는 단계는 앞쪽 방향으로의 걸음걸이 동작과 함께 부드럽게 롤링(ROLLING)이 생기면서 엄지발가락에서 걸음걸이가 마무리 됩니다. 이러한 동작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히 걸음걸이의 동작에 사용되는 각각의 관절과 근육이 정상적인 위치와 상태로 작용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걸음걸이 불균형 증상은 이러한 보행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 골반, 허리, 등, 목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계속해서 바르지 못한 걸음걸이를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걸음걸이가 불균형한 사람의 동작을 옆과 위에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상체의 움직임에서 경직과 구부정함이 발견됩니다. 정상보행이 아닌 걸음걸이 상태에서 천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상체의 좌우 어깨는 회전(ROTATION)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의 회전각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나, 몸통의 회전이 전혀 유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평상시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 분들은 단순히 '내 걸음이 어때서?' 라고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자신의 걸음걸이가 불균형하다는 말은 체형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걷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바르게 서는 자세입니다. 턱은 목 쪽으로 가볍게 당기고, 상체는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귀 · 어깨 ·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서는데 몸자세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을 쭉 펴고, 가슴은 펴서 횡격막을 약간 올립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어깨선과 골반선 그리고 무릎선이 서로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② 양 발의 끝이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③ 한 발을 내밀어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④ 뒤꿈치를 들면서 발바닥이 차례로 닿게 하여 나중에는 발가락이 닿게 합니다.
⑤ 뒷발은 발가락으로 힘 있게 밀어내며 앞으로 전진 합니다.
⑥ 배를 안으로 당기고, 상체는 바로 세운 상태로 체중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⑦ 다리는 자유롭고 쉽게 앞을 향해 움직입니다.
⑧ 어깨는 힘을 빼고 팔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앞뒤로 흔듭니다. 팔의 움직임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정도로 합니다.
⑨ 손도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손바닥에 계란 하나를 가볍게 쥔 느낌으로 주먹을 쥔다.
⑩ 시선은 10~15m 앞을 봅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17 배한증

등이 시리면 양기가 허약한 것

사람의 몸을 소천지(小天地)라고 한다. 머리는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 몸은 사방의 땅을 상징해 네모나다. 머리는 하늘과 같아 시원해야 하고, 땅의 중심인 복부는 언제나 따뜻해야 한다. 그리하여 머리가 뜨겁거나 배가 차가우면 온갖 병리현상이 시작된다. 하늘과 땅의 이치가 사람의 몸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올곧게 서서 생활한다. 다른 동물들은 다소간에 땅(陰)을 향하거나 하늘(陽)을 향해 치우친 자세로 생활한다. 그 성품이 음과 양 어느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천지간에 가장 음양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 이 균형이 어긋나면서 병은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 온갖 물질적인 기능(陰)이 약화되면 땅을 향해 허리가 굽어지고, 때로 기운(陽)이 끝을 모를 때는 뻣뻣이 세운 고개가 뒤로 향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에서 음과 양은 앞면과 뒷면으로 나뉜다. 전신을 흐르는 기(氣)는 경락을 따라 순환한다. 인체의 앞면을 흐르는 경락은 음을 상징하고, 뒷면을 흐르는 경락은 양을 상징한다. 인체 장기의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쪽이 음 경락이 흐르는 복부와 가슴이라면, 인체 장기의 무형적이고 기능적인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쪽이 양 경락이 흐르는 등과 허리 쪽이 된다.

머리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중앙의 독맥을 중심으로 양쪽에 펴져 흐르는 경락들의 경혈들을 보면 특히 등의 경혈들은 장부의 기능을 대표하는 수혈(兪穴)들이 많다. 수(兪)란 맥의 기운이 가장 성한 곳을 이르는 표현이다. 간수, 심수, 비수, 폐수, 신수 등 오장의 수혈과 육부의 수혈이 모두 등과 허리에 위치한다. 경혈들이란 체내 장부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곳이다.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땅위로 나온 곳이 샘이 되는데, 이 샘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지하의 여러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체 내부의 온갖 상태는 이 경혈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고, 또 이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내부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경락과 경혈은 반응점이자 치료점이 된다.

사람들이 적도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체내에 음양의 기운을 골고루 갖춘 정온(定溫)동물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부의 환경은 언제나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인체의 항상성, 면역능력, 적응능력 등으로도 부르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를 바른 기운(正氣)라고 한다. 내 안의 바른 기운이 튼튼하면 외부의 나쁜 기운(邪氣)는 침범할 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바른 기운이 바로 음양의 조화된 힘이다.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잃어 병리적인 상태가 되면 그 변화는 먼저 체온의 변화로 나타난다. 순환하는 기운이 고르지 못하면 그 부위는 낮은 온도가 되고 저체온이 지속되면 통증이 온다. 통증이 계속되면 마침내는 기질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기능의 부조화가 마침내는 인체조직의 변성과 파괴로 이어진다. '시리다' '저리다' '아프다'는 말은 같은 증상의 정도에 따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등은 인체의 양기와 기능적인 현상을 대표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등이 시리다거나 저린 현상은 바른 기운 즉 양기의 허약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분적으로는 시린 부위에 따르는 해당 장부의 기능에 문제가 나타남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등이 시린 현상이 생기면 해당 부위와 정도 그리고 기간과 아울러 연관되는 여러 증상을 종합해서 판단함이 한의학적인 소견이 된다. 아울러 현대 서양의학의 신경학적인 소견이 참고돼야 함은 물론이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등이 시린 경우 일반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인삼, 황기, 하수오이다. 하수오(何首烏)란 이름에는 '어찌 머리가 검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등이 시리거나 만성적인 피로 등의 기능적인 부족현상에 적극 권하고 싶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29 팔괘장 1

호걸은 호걸을 알아본다

음양 팔괘장은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 사천 아미산과 청성산 일대의 '벽운' '정운'이 전한 것으로, 역사는 약 300여 년 정도 됐습니다.

팔괘장은 작은 문파들의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들에게만 전수되며 외부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음양 팔괘장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 폐문지술이 됐고, 세상에는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팔괘장에는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대에 전씨 문중 제4대인 전호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하고 사서오경과 시문에 숙달했으며, 병서를 좋아해 기문둔갑을 잘 보고 기마를 잘했으며, 유람을 좋아했습니다.

전호걸이 유람할 때 사천(四川) 아미산, 청성산 일대에서 장웅이라는 협의지사를 만나 교분을 쌓았는데, 그는 호방하고 악을 원수 같이 미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견에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협행(俠行)을 가게 됐습니다.

전호걸이 사천을 지날 때, 아녀자를 구하고 여러 차례 의롭고 용감한 일을 하는 것을 두 도사가 목격하고 그가 위험할 때는 두 도사가 돕게 됐습니다. 전호걸은 두 도사의 무공이 뛰어난 것을 보고 마음깊이 흠모했습니다. 그 두 도사가 바로 벽운, 정운이었습니다. 이 둘은 친형제였으며, 성은 이(李)씨 였으며, 벽운의 이름은 가(嘉), 정운의 이름은 정(靖)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원래 의사(義士)이고, 스승의 명으로 하산해 악당을 제거하다가 관청에 쫓기게 됐습니다. 그 후로 도포를 입고 도사가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둘은 세상을 유람했으며, 도처가 집이 되고, 후에 심산에 은거했습니다.

전호걸은 벽운, 정운의 신분을 후에 알고 더욱 존경했습니다. 두 분을 스승으로 삼기로 결심한 전호걸은 정운의 문하가 돼 음양 팔괘장을 수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협행 하던 장웅의 숙부가 돌아가시면서 숙모가 혼자 남게 되자, 장웅은 은사의 허락 하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 됩니다. 그 당시 장웅은 음양 팔괘장을 미처 다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후에 장웅은 그의 아들인 장계종에게 미처 다 배우진 못한 팔괘장을 전수했습니다. 장계종은 다시 그의 아들 장영에게 전하고, 장영은 또 그 아들 장홍균에 전했습니다. 전호걸은 스승에게 10여 년을 배우고



팔괘장의 창시자 동해천

음양 팔괘장의 진전을 얻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인데 정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주나?'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어느 부류의 사람이 있나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설사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 괜찮지도 않다면 더욱 분발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야 결국에는 호걸들이 당신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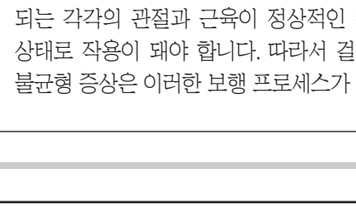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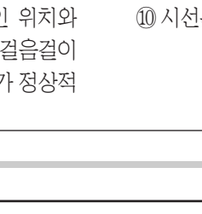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종 도 모 집

대불교 조계종 입종 절차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본 종단에 제방 스님 법사님들께서
대불교 조계종 입종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입종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포교당을 개설하실 분, 부처님을 뫼시고 수행하시는 법사님, 보살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3매 입종원서 등은 본종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본 종단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번지
■ 사무국장 : 박 찬 혁
■ 전 화 : 041) 551-5537 FAX : 041)621-553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다구를 찾아서 ㉑ 초의 선사 〈끝〉

우리 차에 대한 자긍심 남달랐다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한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는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을 이끈 장본인이다. 〈동다송〉은 차의 역사, 제다(製茶), 차의 효능 등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초의 선사는 자신이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차를 만들어 마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의 이론을 종합해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차의 효능이 중국차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얼마나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이 남달랐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초의 선사가 〈동다송〉을 짓게 된 경위는 〈해거도인에게 올리는 글(上海居道人書)〉에 소상하게 적혀있다. 해거도인 홍현주(洪顯周, 1793~1865)가 진도부사 변지화를 통해 초의 선사에게 차에 관해 하문(下問)한 것을 답해서 지은 것이 바로 〈동다송〉이다.


초의 선사 진영(草衣禪師眞影). 작자미상. 견본채색(絹本彩色). 87.0×54.0cm.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

홍현주가 누구던가. 숙선옹주의 남편, 즉 정조의 부마가 아니었던가. 당시는 승려들의 도성(都城) 출입조차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렇게 불교와 승려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절, 부마에게 부탁을 받고 글을 엮을 정도였다면 초의 선사에 대한 평판이 어떠했는지는 알만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다송〉은 목판본으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필사된 4부의 필사본(筆寫本)만이 전해지고 있다. 각각의 필사본에는 중요한 부분 몇 군데에서 글자가 서로 다르기도 하며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있기도 해 초의선사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작자미상으로 알려진 초의 선사 진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평상위에 돗자리를 깔고 가부좌한 자세에 양손에는 각각 불법을 상징하는 염주와 금강저를 쥐고 있는 전신좌상으로 그려진 이 인물은 초의 선사이다. 옷주름과 소품들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명암법에서 서양화법의 영향이 보인다. 일설에는 이 진영의 작자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이라고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활달하다기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필치와 붉은 가사의 두드러지고 과장된 채색효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동의하길 주저하고 있다. 한편 화면 상단 유경도인 신관호의 제찬 중에 "초의 선사가 84세에 입적하셨다"고 한 것이나 "찬문을 을축년(1865)에 지었다"는 내용은 초의 선사가 81세를 일기로 병인년(1866)에 입적했다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초의선사 뒤편에 보이는 다관은 그의 차에 대한 애정과 차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이러한 논란을 짐짓 모른 척 하고픈 심정이다. 왜냐하면 초의 선사에 관한 기록이나 유물, 특히 차에 관해서는 드물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에 관련한 자료의 부족은 초의 선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차에 관한 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기록과 유물, 유적 모두가 그렇다. 차의 역사도 길고 다서(茶書)와 유물 또한 풍부한 중국이나, 차 문화에 관련한 자료의 집대성이 진즉에 이뤄진 일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차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다구와 생활용구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히 돼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분류와 구분이 돼있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다구를 찾아서'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지난 6개월간 연재를 했다. 시작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다구와 음다풍속을 엮을 심산이었지만 거꾸로 다른 나라의 다구가 중심이 돼버렸다. 아마도 연재를 읽는 독자들로써는 우리의 다구가 드물게 소개되는 것이 의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차에 관련된 유물이 아직까지 정리되고 정의된 것이 충분치 못해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역사학자, 특히 고미술과 도자사 연구가, 도예가 등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차를 처음 접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다구의 선택이라고 말한바 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 역시 이제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음료가 됐다. 차와 그에 수반된 문화를 접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이면의 선택과정을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회를 대신한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㊺ 갑사 팔상전 단풍나무



공주 갑사 팔상전 뜰에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때는 단풍나무가 풋고추처럼 파랬다. 유난히 싱그러운 모습에 눈이 갔었다.

바람 한 점 없었던 그 날, 목마른 햇살이 나뭇잎에 묻어서 초록을 조금씩 물어갔다. 몇 해 지나 가을에 가봤더니 단풍나무가 없었다. 그루터기만 남아 마른 낙엽에 휩쓸리고 있었다.

말없이 이사 가버린 어릴 적 한동네 여자아이처럼 섭섭했다. 대문 앞에서 이름만 부르다 그냥 돌아왔던 그 때처럼 사연도 묻지 못하고 그루터기만 바라보다 돌아왔다. 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연도 물을 새 없이 떠나갈 때가 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7도 상작천락묘성계장엄

천인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다. 춤추는 천녀의 모습과 날아가고 있는 구름, 공중에 떠다니는 칠보는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이루고 있다. 도상은 〈불설아미타경〉의 5쪽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3분의 1까지 이어진다.

"사리불아, 저 부처의 나라에는 언제나 하늘의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이 땅이 된다."(又舍利佛 彼佛國土 常作天樂 黃金爲地)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맑고 미묘한 음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백 천 가지 음악보다, 혹은 전륜성왕의 음악보다, 더 나아가서는 육욕천상의 모든 재주를 다한 음악보다 천억 만 배나 더 훌륭 하느니라. 또한 보배 나무의 음악 외에도 자연히 울리는 천만 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그 음향은 모두가 진리를 설하는 소리로서, 한량없이 맑고 애절하며 아늑해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으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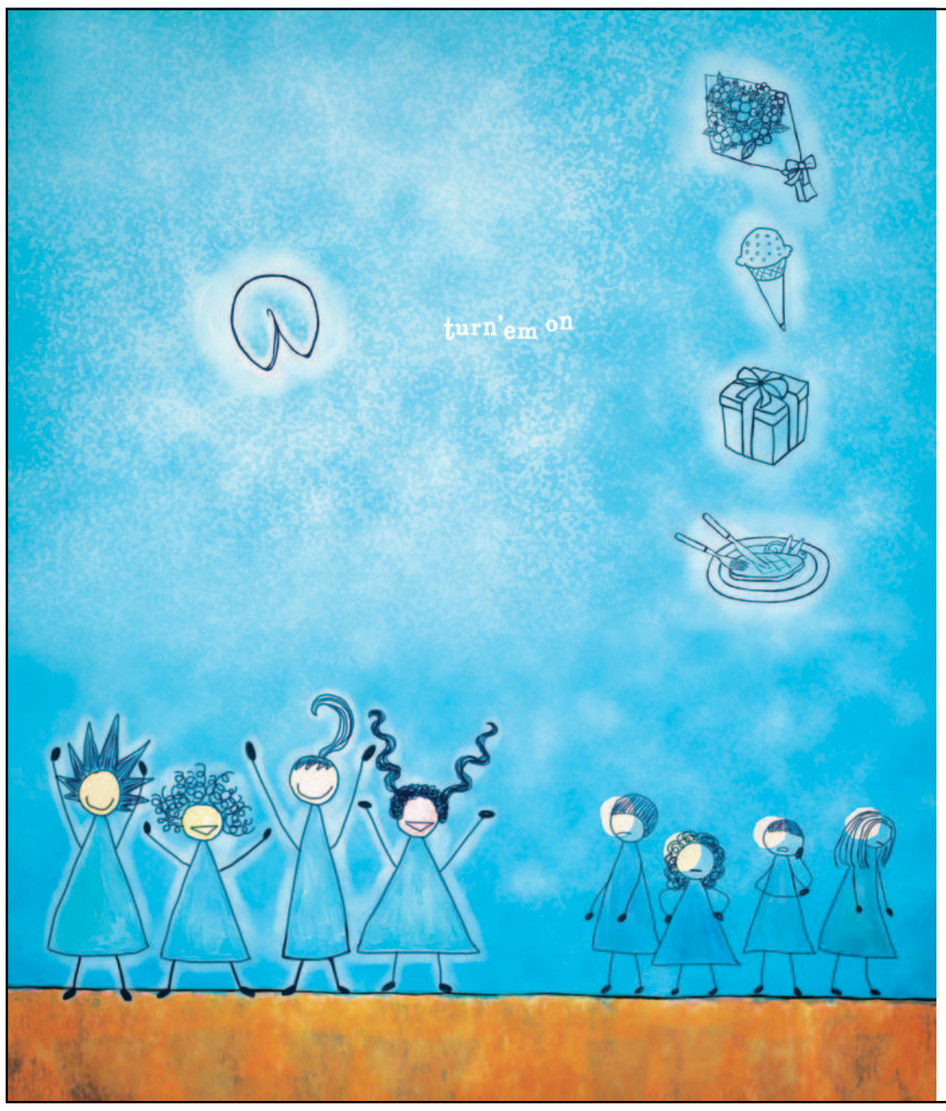
어느 큰 스님이 아침마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합창 교향곡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깨달음을 이룬 소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수승한 음악이 극락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음악으로 살아나, 다시 내 귀를 아름답고 황홀하게 울리고 있다. 산속에 자리한 치악산 명주사는 아침마다 새소리로 장엄된다. 자연 속에 울려 퍼지는 새소리를 들으면 바로 저러한 소리가 극락에서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미묘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닐까 상상해본다.

훌륭한 고전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장중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음악소리가 매일 울려 펴지면서 그 음악소리가 나의 미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닦아주는 청량제가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이 설하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 보자. 생동감 있는 표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이 삽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가슴에 새겨, 험난하고 고난에 찬 사바세상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로 치유돼, 행복의 합창이 울려 펴지는 극락세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꿈꾼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7도 상작천락묘성계장엄(常作天樂妙聲界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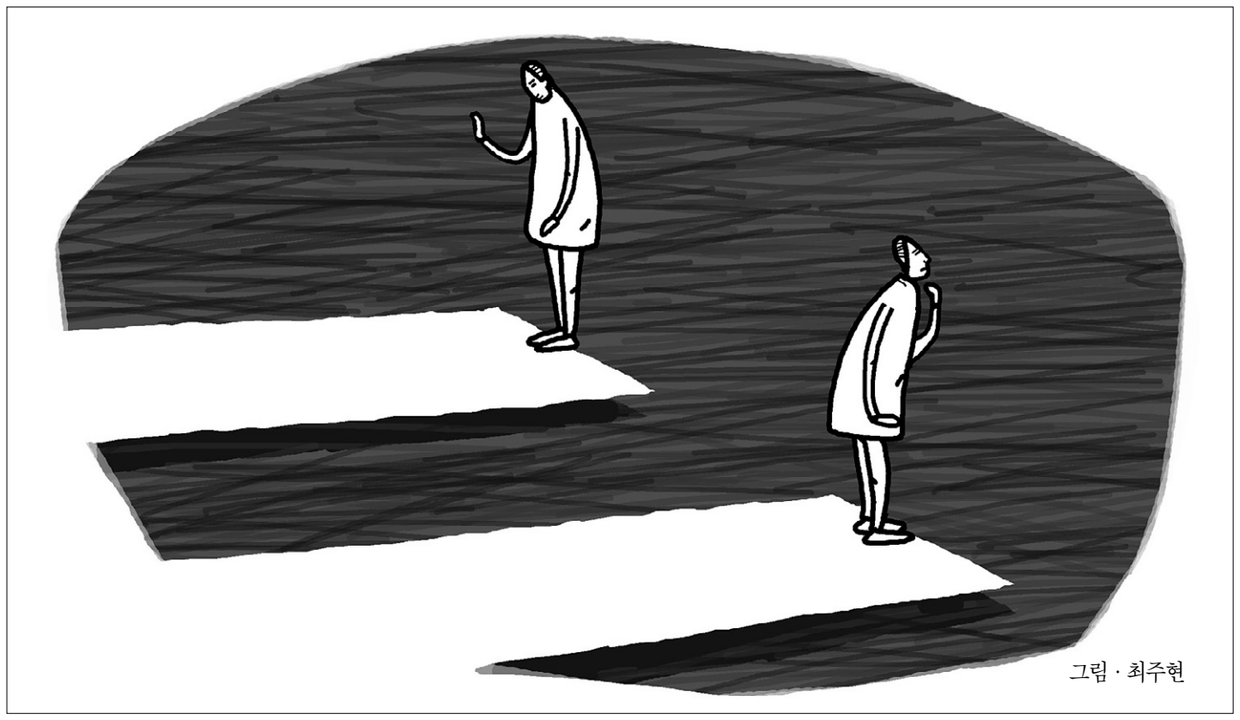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여러분이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오늘 여러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나도 안개가 끼어서 공항에서 무척 기다린데다 비행기 타고도 지연이 돼 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기다렸었어요. 일찍 나와서 세 시간씩 기다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리게 됐네요. 여러분이 기다릴까 봐 딱해서 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면 여러분도 지루하겠죠?

우리가 기다린 지루함은 한생각으로 돌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한생각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점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설법이라기보다는 대중 토론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 사는, 공생으로서 공용하고 있죠. 그러니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모든 문제를 각자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바로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부처님 도량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 체 없는 마음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청정함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걸림 없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도 버리지 않는 법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즉 말하자면 갖추어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또 일심으로써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고 모든 법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니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 법은 자기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의 그 묘한 법, 광대무변한 법은 모른다.' 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고등 동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에 걸쳐 '아, 이런 거는 잘못된 건데….' 하고 반성하고 고치면서 살아오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혜롭게 썼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도 짐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간까지 됐으니 인간 자체가 모두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마음을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고 청정함도 나한테 있고 걸리지 않는 것도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몰라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윤회에 끄달리고 업보에 끄달리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팔자 운명에 끄달리고, 부적을 써 붙여야 잘된다는 것에 끄달리고 '내가 그냥 이사를 가면 사단이 나지. 무슨 일이나 생기면 어쩌나.' 하는 데 끄달리고, 무꾸리를 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언짢다고 하면 언짢은 줄 알고 남의 말에 끄달린다면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 된 도리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 행을 못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생각의 도리를 알면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인과응보에 끄달리면서 일체 모든 것이, 발 하나 떼어 놓는 대로 고(苦)니라. 네가 고덩어리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한 말씀 올리고 여러분이 또 질문도 하시고 이러세요.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도 '고덩어리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멸해 버리느니라. 그러면 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편하게 아세요.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난 게 고덩어리니라. 왜 고가 됐느냐? 내가 나기 이전의 수없는, 물질에 끄달리면서 살아내려온 그 습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에 살면서 지은 인(因)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형제의 인, 부모의 인, 자식의 인…, 착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인에 의해서 과(果)가 되고 인과가 돼 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뭉쳐서 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고가 어디 붙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생기고 길쭉하게도 생기고 모습이 죄 다르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는 짐승들도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천차만별이고 짐승도 천차만별이고 사생이 다, 알로 낳는 거든지 태로 낳는 거든지 습한 데서 낳는 거든지 화해서 낳는 거든지 다 천차만별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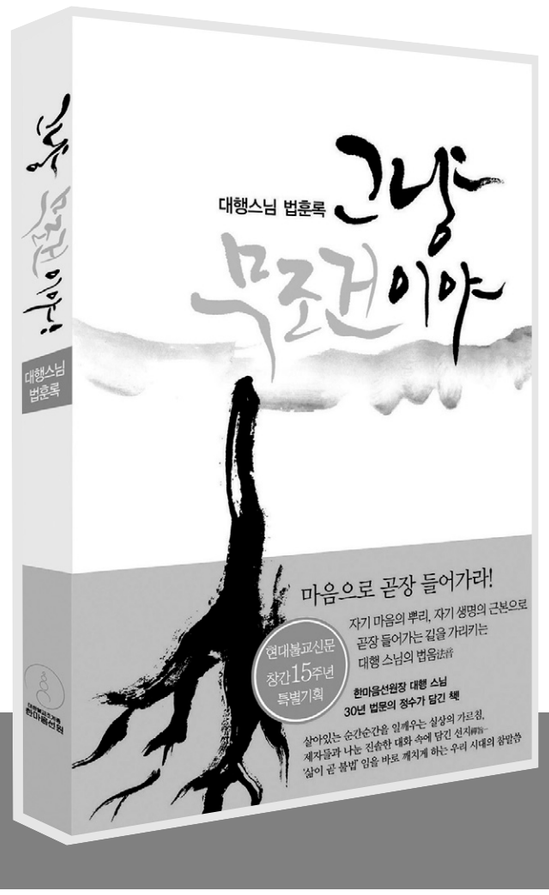
그렇듯이 내 몸 안에 지금 수십억 마리가 돌고 있는데 그게 인과로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은 내가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그 인으로 인해서, 업보로 인해서, 살던 습으로 인해서 온 인과가 뭉쳐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악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오고 증오하는 마음도 나오고 별 마음이 다 나오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되는 수가 있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잘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행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신다면 행과 마음과 말과 뜻이 바로 합류화돼 가지고 스스로 속이 상하질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말도 편안하게 나와서 남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면 빚진 사람이 갚지 않다가도 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아, 저 사람에게 빨리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갚게 되는 거고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장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모두를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이, 또 말을 어떻게 해 줘야만이, 행을 어떻게 해야만이 직원이 자기 뼈를 깎아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 '내 사장을 살려야지. 이 회사를 위해서 저분은 참 애쓰셨는데….' 이렇게 '저분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해야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삐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삐뚜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생활선으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행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음과 행으로써, 즉 말하자면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에 빠지거나 유(有)의 생활에 빠진다면 이건 저울이 맞질 않는 거죠. 양면이 다 맞아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돼야 되겠죠. 동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몸뚱이의 고'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은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게 된다.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그러면 스스로 바로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집착 말고 모든 것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25면에서 계속

재생이 돼서 나간다. 그것이 집착을 하지 않고 놓는 것이다. 그러면 멸한다. 멸하면 도니라.' 이겁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얘기해 드리죠. 내가 지금 몸에 들어 있는 그 인과응보에 의한 의식 자체를, 수십억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배인이 모든 부하를 인솔하는데 마음을 잘 써 주면, 둘이 아니게 써 준다면 그 수십억 마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따라 줍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장 공장, 위 공장, 이 공장 저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으니 지배인의 한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한마음을 잘 쓴다면 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 마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줍니다. 그래서 묘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미래에 천당에 간다, 승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고 현실 일도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무(無)다' 이런 겁니다. '공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이론으로써 학식으로써 지식으로써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연구해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해 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업과 선업이 한데 뭉쳐 있는데 악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니요 선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여러분이 마음 쓰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 겁니다.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광로에 넣듯이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되는 것도 찰나 되는 것도 찰나라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남도 그렇고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공했단 얘기죠. 그것을 현실로써 널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와 상대, 이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으로 뭉쳐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저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탐험할 수도 있는 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광로에 넣듯이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전자에 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번갈아 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겁니다. 안에서 솟아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기복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공덕도 없거니와 이익도 없고 또 세세생생에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체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악업 선업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모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만 없으면 송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수십억 마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업 악업 지은 데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를 통해서 바로 소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중추 또는 척수 이런 데로, 양쪽에 마이크 세워 놓았듯이 세워 놓은 데서 척수 자체에서 중추를 끼고 도는 그런, 가장자리 양쪽에 붙은 것이 바로 전체를 통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잘돼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아유, 참 감사하구나!' 이러는 게 그냥 놓는 겁니다.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됐으면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놓는 겁니다, 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창살 없는 감옥에다 자기를 넣고 옹쳐매니까 나는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신 마음으로 옹쳐매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는 게 고(苦)고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들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섯 가지는 대신 못해 준다고요. 똥 누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아픈 거, 이런 거는 대신 못해 줘요.

여러분한테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다면 나도 요만큼밖에 얘기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드럼통만 하다면 드럼통에 담길 말을 하게 되죠. 바다 같다면 더 말할 거 없이 함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가고 옴이 없이 "허허, 물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을꼬? 배가 없는데 탈 게 어디 있으며 건너갈 곳이 없는데 건너갈 게 어디 있나, 내가 공했는데."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아, 이런 말들로 쭉 법문이 돌아가죠. 그런데 수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행 한 번 잘못해 가지고 백 번을 고생을 하고 백 마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을 둘 걸 둬야지 이 몸뚱이도 내 집이란 말입니다. 내 집에도 착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런 것에 착을 두지 마라. 내 집까지도 착을 두지 마라." 왜? 평생 살다가 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이걸 두고 떠나느냐 이거죠. 착을 두면 이 집을 떠나지 못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콩깍지 안 떨어져서 억지로 떼듯이 그렇게 아픔을 당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착을 두지 않는다면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콩이 다 익었으면 홀떡 까지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까지죠. 그런데 다른 데 착을 둔다면 평생 살던 이 몸뚱이의 착은 어찌 떼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이 생활선이며 그냥 행선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이를 화두로 생각하십시오. 화두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서 받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냥 저절로 생겨요. 이 몸뚱이가 난 것이 태초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도 되고 화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고덩어리다 했으니 여러분이 그 고덩어리를 녹여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과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선생님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막론하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남한테 전가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성가시면 "아이구!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깡통은 깡통전에 깡통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지간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깡통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죠? 소리가 납니다. '넝마는 넝마전에 모여 있고'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것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온통 이 야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 가지고 철모를 때 빼고 잘 때 빼고 늙었을 때 빼면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패기 있고 자유스럽게, 좋으면 껄껄 웃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냥 난우스워 죽겠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요, 어떤 때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차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그렇게 퍼져 나오지 않느냐, 울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도인 없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오면서 보니까 네 살 먹은 애가 차에 치여 죽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고것도 도인이더라고요, 하하하….

여러분! 글쎄 생각해 보세요. 개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있는 거고 있다고 해도 없는 거고, 사람에 따라 차원에 따라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도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리저리 둘러보고선 차가 오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곤 차가 딱 지나가니까 쏜살같이 건너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개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하고 웃고 들어오면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참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애썼느냐." 하고 이렇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니, 뭐?" 이렇게,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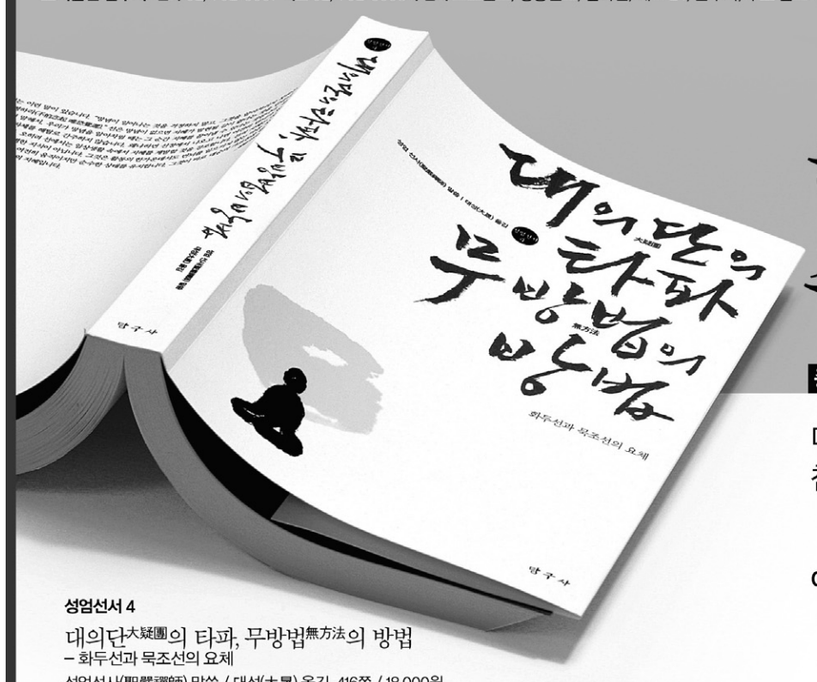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 먹을 것에도 착을 두지 않아야 들어와요. 돈도 착을 두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병고도 탁 놓고 '네가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모두 뭉치게 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아, 이러고 탁 놓으니까 이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달아나가거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10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02) 702-3558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운주사, 주요 불교서점

탐구사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대만) 선불교의 진수!

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은 것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

대만을 중심으로 일약 부흥하는 중국선의 중심인물 성엄선사,
침체에 빠진 한국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성엄스님의 법문집 시리즈 제4탄!

성엄선서 4
대의단大疑團의 타파, 무방법無方法의 방법
– 화두선과 묵조선의 요체
성엄선사(聖嚴禪師) 말씀 / 대성(大晟) 옮김 416쪽 / 18,000원

이 책의 주된 내용
- 화두와 묵조에 착수하기 전의 예비 수행에 관한 참신한 안내
- 간명히 정리된 화두선 3단계와 처음 소개되는 묵조선 3단계
- 선 수행자들과 선 수행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의 설명
- 감산덕청, 황룡오신, 대혜종고, 굉지정각 선사의 법어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

수행 불자들의 필독서 – 성엄선서 시리즈!
1. 마음의 노래 – 우두법융 선사의 「심명」 강해, 320쪽 / 15,000원
2.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 「신심명」, 「참동계」, 「보경삼매가」 강해, 288쪽 / 12,000원
3. 지혜의 검 – 「증도가」, 「반야심경」 강해, 320쪽 / 13,500원
5. 선의 지혜 – 불교에 관한 문답 〈근간〉
*성엄선서는 계속 출간됩니다.



성엄선사(聖嚴禪師, 1930~2009)
- 동서양을 넘나들며 중국선(Chan)을 세계에 알린 대만불교의 중흥조
- 계·정·혜 삼학을 두루 겸비하고 선풍을 드날린 당대 최고의 고승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 정신과전문의

성희롱 가해자의 심리 배경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전에도 높은 공직에 있던 분들이 이와 비슷한 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모양이다. 대개의 성희롱 · 성차별 발언의 남성들이 그렇듯, 이들 대부분은 지능이 모자란 때문이 아니다.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농담'을 더 즐길지 모른다.

이상하게도 권력을 지녔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그런 저질성의 발언은 교묘한 농담으로 또는 솔직한 태도의 한담 속에 직선적으로 또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곤 한다. 당사자는 으레 자신의 말은 솔직한 성격의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거나 '마초'(남성다움을 과장 또는 경박스럽게 보여주는 남자)같은 기질을 드러낸 것쯤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선 특별히 다른 인격적 결함 같은 게 발견되진 않는다. 대인관계나 공적인 일에서는 오히려 유능하고 창의적인 편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허나 다른 사람과 그 차이가 있다면 여성성에 대한 몇 가지 태도가 문제일 것이다.

먼저, 남자들이란 사회생활에서 공격적 · 적극적 태도를 권장되어야 할 덕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 자체에 잘못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수동적 · 의존적인 처지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로 본다. 성 역할에 대해 보다 경직된, 폐쇄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유형의 역할 모델을 학습해온 탓도 있다. 개인의 가족사에서 특히 성 역할 모델이 경직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해서 남성은 강한 지배심리나 출세 또는 파워게임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배이게 된다. 성장과정에서 성 역할 개념에 대한 변화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여성성이나 남녀 성에 대한 차별 없는 이해를 진지하게 탐구할 경험이나 여력이 없었다.

사실 성에 대한 태도는 권력에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력의지는 남성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다. 아무런 사회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의지가 강한 자는 생각 없이 성차별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요한 권력 추구형(혹은 출세지향)의 사람일수록 대체로 매우 이기적이고, 주위 사람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높다. 해서 말과 행동에서도 그 차이를 자주 내보이곤 한다. 대화나 인간관계가 일방적인 편이다. 당연히 여성성에 대한 여러 경직된 태도도 드러난다.

일부 성희롱 자들은 성적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에 못 이겨, 말하자면 성 욕구 배설의 억압이 강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보다는 가해자들에겐 상대 여성에 대한 모욕이나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 여자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공격적 지배욕이 남달리 강하다. 평소에도 여성의 육체에 대한 소유 개념이 다분하다. 때문에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이 곧잘 느끼게 되는 무력감 · 수치심 · 분노 · 모욕감 같은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피해자 여성 대부분은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을 거라 보고 자신의 파워는 우월한 위치에 있을 거란 가정을 하기도 한다.

여성의 심리나 언어 · 행동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도 다반사다. 여성성을 무시하려는 무의식적 습성 때문에 가학적 성격의 성적 발언이나 '농담'이 여성들에게 은근히 자연스럽게 또는 당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런 '마초'류의 남자들은 서로 어울려 이런 행동을 더 강화하고 정당화하곤 한다. 하나의 고질화된 습성 탓에 단기간에 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듯싶다. 자신의 오만한 태도 일반에 대한 내적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무슨 발언이든 그것의 공공적 성격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 남자답다는 소리보다는 품위 있게 살며, 인간답게 행동한다는 소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사부대중 칼럼

수각 정사
대한불교진각종 성진심인당 주교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해외포교의 문화적 접근

해외포교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행의 교류이면서 문화의 흐름이다. 포교에 있어서 문화의 문제는 포교주체가 자신의 문화를 떠나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 그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포교의 질과 영향과 의미 모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문화와의 만남인 해외포교에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교주체가 스스로의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동시에 전해 듣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해외포교의 전략개발과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포교의 문화적 경향과 특성들이 비중을 갖고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해외포교 현장에서 도출된 현상적인 문제점들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중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自文化 中心主義, ethnocentrism)>이다. 이는 단지 자신의 문화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른 문화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 없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나 자신의 문화의 여러 특질들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 하는 것도 포함된다.

불자의 입장에서 해외포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을 논하면서 2007년 이맘때에 분당의 샘물교회 소속의 목사와 평신도를 포함한 23명의 단기선교 일행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그 중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과정과 사태 이후 수습과정을 보면서 상대국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종교활동이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간접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범한 잘못과 오류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분쟁지역을 포함한 해외포교의 흐름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해외포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화차이의 영역은 바로 국가와 국가 간 즉, 포교대상 민족의 고유문화와 한국인으로서 포교주체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경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민감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실제 포교주체가 가장 혼동하기 쉽고 유혹과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양 주체간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상대방을 대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접했을 때 갖게 되는 심리적 우월감과 그로 인한 충돌이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포교대상국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후진한 나라들임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경우에서든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언어와 생활양식의 문제도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화차이의 영역이다.

해외포교와 국제교류를 단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고 보자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국제교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부터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수행전통과 신행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각종이 운영하는 스리랑카와 네팔의 JGO지부에서 선발한 두 명의 외국인 포교사의 경우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것이다. 2003년부터 7년간의 위덕대 학업기간동안 한국문화와 진각종의 신행생활을 몸으로 체득한 두 사람은 한국에 체류중인 스리랑카, 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 유학생,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 괄목할 만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은 스리랑카, 네팔 현지 언론에 수차례 크게 소개되었고, 지난 6월 스리랑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이 앞으로의 양국 간의 불교, 문화교류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세계 각국과의 인적교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장차 한국에 호의적인 자국민들에게 선행자의 위치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관계형성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포교주체 측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여 포교의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사 설

장학기금 확보와 활동 공간

조계종 장학위원회가 출범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월 26일 11명의 스님을 장학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서 자승 스님은 "각자의 인연 따라 개별적으로 전달받던 장학금을 종단이 나서 장기적?체계적으로 보다 많은 학인스님들에게 지원해주자는 뜻에서 장학사업을 확대했다. 불교의 미래를 키울 인재를 눈 밝게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단 소속의 스님 가운데 외국의 대학에서 석 ·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스님이 600여 명이다. 1만2천의 조계종 스님 중에서 이 숫자는 적지 않다. 5%에 이르는 비율이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종립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중인 스님들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다.

장학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학업 중인 여러 스님들에게 종단 장학금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양성에 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니 가뭄의 단비같이 반가운 일이다.

장학금 지원 인원을 늘려나가야 하려면 기금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소수의 인원에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계종단이 지닌 큰 위상에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불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도 그만큼 더뎌진다.

기금 조성과 함께 애종심이 넘쳐나고 유능한 스님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인재가 없어서 문제라는 인식은 절반만 옳다. 세상의 요구와 물음에 답하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종단의 조건, 즉 다양한 기구와 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적재적소'라는 말이 성립된다.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100년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이 출간된 해는 1913년이다. 그보다 세 해 앞서 원고를 집필을 완료했으니, 올해가 <조선불교유신론>이라는 닭 울음이 울린 지 100년이다.

만해 스님은 백담사에서 유신론을 '닭의 울음'이라고 하며 펜을 놓았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영탄조로 표현했다. "아, 슬프다. 비린내 나는 바람과 핏방울의 비가 어지러이 쏟아지고,…바야흐로 밤이 긴데 내게는 잠이 안 오고, 생각이 참으로 길어지니 도리어 고개 드는 시름! 시름은 끝없기에 한숨과 노래 뒤섞이노니, 아우여 형이여, 들리지 않는가. 이는 피리 소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이로다."

예나 지금이나 불교의 유신 또는 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하고 말고 할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에 맞는 불교의 운영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나아가 사회에 회향하기 위해서도 늘 변화해야 한다. 우리 불교사에서는 백련결사 · 정혜결사 등 근원으로의 복원과 혁신을 위한 움직임은 간단없이 있어왔다.

마침 '불교유신론' 집필 100년이다. 만해 스님은 이 책에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 불교는 유신할 것이 없는 탓일까, 아니면 유신할만한 것이 못되는 까닭일까"고 한탄했다. 이 한탄이 어찌 만해뿐이겠으며, 100년 전의 과거이겠는가. 불교 개혁의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제 적 공 고

• 월봉 (연규안)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산 72-1	효자암
• 종욱 (이홍규)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67-2	승학사
• 고봉 (박영열)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산35	대광사
• 무공 (김관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50-1	천문사
• 지운 (최동규)	경남 사천시 백천동 112	백천사
• 계수 (박양업)	부산시 진구 가야1동 386-67.	여여정사
• 정득 (박찰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411-17	금지암
• 원만 (김숙희)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421	장엄사
• 지은 (정영순)	부산시 사하구 괴정4동568-31	보국사
• 혜근 (김금자)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246	성불사
• 한정희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676-4	대성사
• 박순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1162-20	정토사

상기자들은 본 종단에 해종행위를 하여 본 종단 징계위원회에서 제적 판결되었으므로 이에 승적제적 및 사찰등록을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4(2010)년 7월 27일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48-6 동신빌딩 302호 / 총무원 전화 051)527-7733

社團法人 大乘佛教 曹溪宗 總務院長 閑坡

너 정말 뱃놈이 될래?… 전 배를 타야 되요

연안부두, 민중항쟁 그리고 뱃사람이 되려던 도전의 추억

오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쓰렸을까

기억 속의 인천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 바다에 빼곡하게 들어선 어선들. 배끼리 촘촘하게 붙어 맨 끝의 선원은 그냥 걸어와서 부두로 내려온다. 부두엔 배를 수선하는 작업장도 있다.

살아 온 자국들은 지워지지 않나 봅니다. 아주 잊어버렸다 싶은 일이 어떤 때를 맞닥뜨리면 그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도 나타납니다. 흔히 나이 들어가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푸념을 합니다.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이 근래 일보다 더 생생하다고 말입니다. 가까운 날의 기억보다는 먼, 그것도 꼬맹이 시절의 일들이 왜 나이 먹으면서 더 또렷이 되살아 나냐고 되묻습니다.

기억의 '사전적 정의'는 '지난 일을 잊지 않고 외워 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워 둔다고 했습니다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기억의 상체기는 머릿속 어느 방에 남게 됩니다.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기억의 저편'이라고 합니다. 저편은 머릿속 어느 방을 가리키지 않을까요. 기억을 빛깔로 치자면 대체로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남은, 살아 온 자국은 저마다 저 어두운 방에 남아 있다가 필요에 따라 밝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군요.

기억과 비슷한 말로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의 사전적 정의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입니다. 기억이 흔적이라면 추억은 그 상체기를 밖으로 불러내는 짓거리입니다. 빗대자면, 잠잠한 물에 바람이 불어 몰개(파도)가 이는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즐겁고 좋은 기억이라면 마땅히 추억도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스레 골치 아픈 추억에 한동안 마음이 내둘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추억을 혼자만 간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좋은 추억일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아픈 상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과 어우러진 기억이 있습니다. 1986년, 5월 3일 한낮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던 '인천민중항쟁'의 기억, 그보다 앞서 1983년 초, 한밤중에 부평5공단에서 서울 경계까지 터덜터덜 걸어야 했던 일, 또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1973년이던가, 아무튼 그 무렵에 뱃사람이 되기 위해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성였던 기억 따위가 그렇습니다. 그때 뱃사람이 되었다면 그 뒤의 나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삶이란 그런 모퉁이에서 약간이라도 비껴가게 되면 뒷날에는 정말 가늠하기 어렵게 멀리 벌어집니다.

뱃사람이 되려던 사연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거의 매일 어울려 지내던 동무가 있었습니다. 오섭이랑 수진이 입니다. 둘은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른 학교였지만 어쩌다 보니 무척 친해졌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반 무렵부터 그들과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은 학교 벗인 경호가 그들과 친한 사이라서 나도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나는 구로동에 살았고 걔네들은 신당동에 살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파하면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 동네엔 나랑 같은 학교 동무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구로동보다 더 편했습니다. 어떤 때는 거기 오섭이네 집에서 자고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일본식 집구조였던 오섭이네 집은 2층이 다다미방이었습니다. 아래층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오섭이가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도 오섭이의 권유로 읽었습니다. 제임스 딘의 영화도 오섭이가 얘기해줘서 왕십리 어느 극장에서 봤습니다. 무식했던 내가 조금씩 '유식'해지는 데에는 오섭이의 도움이 컸습니다.

수진이는 기타를 무척 잘 쳤습니다. 그저 잘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형은 미군부대에서 뛰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때 미군부대의 밴드경연에서 상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진이도 형 못잖은 '직업선수'였습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수더분한 성격이라 더 멋져 보였습니다. 수진이네는 한강 건너에 무척 넓은 과수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당동에서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를 건너 가다보면 왼편으로 수진이네 배밭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박정희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던 무렵, 60년대 말에 팔당댐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73년에 완공합니다. 그리곤 곧 서울의 한강변 양쪽 둑(제방)을 재정비합니다. 수진이네 밭은 한강둑정비사업으로 강제수용 당합니다. 헐값으로 징수된 땅은 얼마 뒤 아파트단지로 변합니다. 강남의 신화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무렵의 수진이네 배밭 자리에 들어선 현대아파트는 부자의 상징이 됩니다. 그 아파트 몇 채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쳐졌답니다.

오섭, 수진이랑 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바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블란서 배우 아랑 드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탓이었을까요, 우린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원양선을 타고 바다를 누비다 어느 낯선 나라 항구에 내려 진탕 놀아나는 '마도로스'를 그렸겠지요. 지금이야 외국을 드나드는 게 제주도 가는 것보다 쉽다면 쉬운 시절이지만 그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양선의 선원은 그래서 더 부러웠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그 해 여름 오섭이랑 수진이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개기다 보면 요행으로 선원이 되지 않겠나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정말 1년도 되지 않아 오섭이는 어느 원양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부산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부산 구포의 가구공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부산이 살기 좋아 선원 대신 가구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수진이는 그 공장의 기계톱에 왼손 검지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오른손이라면 나았을지 모릅니다. 이젠 수진이는 기타를 칠 수 없습니다.

동무들이 떠나고 난 뒤 좀 지나서 나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연안어선을 타려 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탔고 인천역에 내려 물어물어 연안부두에 가서 서성였습니다. 꼭 출가하려고 절에 올라와서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모양새였을 겁니다. 고기잡이배가 연신 드나들었던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른일곱 해 전의 일입니다. 그때도 무척 더운 여름이었죠. 살기 어려운 집안형편이라 내 주머니엔 돌아 갈 찻삯만 있었을 겁니다. 점심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서성이다 어느 건장한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고기잡이배를 타려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런 말을 건넸는데 그 이가 선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선장을 알려주었는지 드디어 선장을 만났습니다. 너 고기잡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한번 바다에 나가면 어떤 때는 여섯 달 동안 뭍에 내리지 못할 때도 있다, 조기잡이철에는 '파시'라는 게 바다 한 복판에 선다, 또 제 철 고기를 잡으려고 동해까지 가기도 한다, 그럴 때 흙냄새는 먼 바람에 실려 올 뿐이란다, 그런데 정말 뱃놈이 될래? 네, 전 배를 타야 되요.

그이가 탄다는 배도 보여 주었습니다. 거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내가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집에 가서 상의하고 보호자랑 다시 와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사실을 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공장엘 가지 왜 뱃놈이 되려 하느냐 이겁니다. 간신히 설득해서 이틀 뒤인가 모시고 인천 연안부두엘 다시 갔습니다. 그 선장을 만났습니다. 얘기는 끝났습니다. 짐 챙겨서 며칠날 어디로 오라 했습니다. 그때 오고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쓰리셨을까. 말없이 오고 갔었나 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땐 전철 개통 전이었습니다. 차창에 스쳐 지나는 바깥 풍경만 쳐다봤습니다.

땅바닥에 발붙이고 살 팔자였을까요, 그때 마침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내가 고기잡이배를 타려 한다니까 할머니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결국 분란만 일으키고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뒤 염산만드는 공장에서 날일을 하다 그 뒤 구로2공단의 어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오섭이는 한 7년 뒤 쯤 귀국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오섭이가 공무원이 될 즈음 수진이는 경기도 부천에 목공장을 차렸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연안부두엔 여전히 고깃배가 가득합니다. 경매가 끝나 텅 빈 수협공판장 앞 부두에 늘어 선 고깃배들의 깃발과 쇠줄로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그 너머엔 중국으로 가는 국제여객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연안부두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숱한 사연을 갖고 있겠지요. 바다 위를 떠도는 이들의 무수한 사연을 모두 합치면 짙푸른 바다색이 되지 않을까요.

인천역앞 중국인마을(차이나타운)의 식당에서 자장면 곱빼기를 사먹었습니다. 그 옛날 내가 연안부두를 찾았을 때 점심 먹을 돈도 없었기에 이곳에 들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때 여기에 그런 마을이 있었나…, 모든 게 흐릿합니다. 다만 그때 연안부두를 서성이던 모습만은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랑 이곳을 찾아 왔다 돌아가던 모습도.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